朝鮮日報 夕刊 十二日(金) 本紙朝夕刊二十面

明年度豫算總額 廿七億七千萬圓

馬場案보담 二億七千萬圓節減

十二日閣議서 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 前內閣에 依하야 總大豫算을 二十七億圓臺로 節減할方針下에 賀屋大官이 中心이되어 各省事務當局과 折衝을거듭하고잇섯는데 十一日午後에 겨우各省과의 折衝을끗내게되엿슴으로 同日午後七時부터 藏相官邸에 省議를열고 大藏省案의 最後的檢討를한 結果 馬場藏相案에依한 十二年度豫算三十億三千八百萬圓으로부터 總額二億六千八百萬圓의 節減을하기로하고 結局明年度修正豫算總額은 二十七億六千九百萬圓으로 決定되엿슴으로 十二日閣議에 附議하야 正式決定키로되엿다 또 이計數整理結果는 數字에 多少의 變更이 잇드래도 二十七億七千萬圓을 超過하지는 안흐리라고한다

文化勳章令公布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廣田內閣當時부터 懸案이 되고잇는 科學藝術其他國家의 文化的方面에 功績이잇는者에 對하야 그勳績을 表彰코저 文化勳章制定에 對하야 賞勳局과 協議를 進行하고 잇섯는바 겨우成案을 어덧슴으로 上奏御裁可를 仰하야 二月十一日의 紀元의 佳節을 卜하야 左와如히 公布하엿다

朕 文化勳章令을 裁可하고 玆에此를公布케함

御名御璽

昭和十二年二月十一日

內閣總理大臣 林銑十郎

勅令第九號

文化勳章令

文化勳章은 文化의 發達에 關하야 勳績卓絶한者에게 此를 賜함

首相施政方針演說大綱

十二日閣議에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十五日停會後再開議會劈頭에 貴衆兩院에서 行할 林首相의施政演說은 大橋書記官長及 川越法制局長官室에서作成하야 十日閣議에서 其大綱은 成하엿슴으로 修正豫算決定後 大橋書記官長室에서 再檢討를行하야 原案을脫稿한다음 十二日 定例閣議에附議하야 正式決定하기로 되엿다 右演說에 잇서서는 먼저 皇室의 御稜威를 奉祝하고 帝國의隆昌 國民의福祉나아가서는 世界平和確立을 爲하야 日夜御軫念하압심은 實로 恐懼不堪하는바로 今回 不肖에 大命을拜受하고 一死時艱克服에 當하게되엿다는旨를述한다음 新內閣의施政方針을 宣明하기로되엿는데 演說中에가장注視되는것은 電力統制 義務敎育延長等重要法案에關하여는言及하지안키로되엿고 祭政一致의 [illegible]하엿는데 該演說의大綱은左와如하다

一、國體觀念의 明徵

我國의國體는祭政一致의 [illegible]한國體인바 敬神崇祖의 大義는實로 日本의眞髓이다 光輝잇는 國體觀念을 明徵하고祭政一致의 精神을發揚하야 邦家興新의 源泉을 깁히하려하는바이다

一、帝國의外交方針

我帝國의 外交方針은 擧國一致로 善隣協和와 和親의實을擧하려함을終始一貫으로不渝하는바이다 國際正義에則하야 [illegible] 列國과의 特殊不可分關係[illegible]化하고 東亞安定을 實現하려하는 大局的見地에서 日中國交調整에 邁進하려하는바이다 그리고 [illegible]關係의 明徵을 切望하는바이다

一、明年度豫算

新內閣은 成立한지 얼마안되엿슴으로 前內閣의 豫算을 修正하기로하야 大體로 그것을 踏襲하기로하고 [illegible] 檢討한結果 二億七千萬圓을 減額하고 現下의內外情勢에鑑하야 緊切한政策만을 實現하는同時에 物價騰貴를 防止하는바이다 그리고 租稅制度의 改正에 關하여는 租稅收入의增加를 圖하고 財政의基礎確立에 資하는同時에 國民의租稅負擔의 均衡을 目標로 租稅制度의 整備改革을 斷行하려하는바이다

一、行政機構改革

時代의推移에 伴하야 綜合的으로 妥當適確한 行政의遂行을 期하기爲하야 行政機構의 整備改善을 緊急히하고 其實績을 [illegible]하기爲하야 目下 [illegible] 成果를 엇을때로 [illegible] 實現을 期하려하는바이다

一、國防[illegible]

我國의 生存을 確保하고 諸般施策을 遂行하기 爲하야는 國防上 一步도 不許하고 더욱 邦家[illegible] 緊要하고 國是遂行에 必要條件인 國防의 充實과 生產力의 增進을 圖하야 所謂 不脅威不侵略의 根本方針을 堅持하는바이다。

一、產業[illegible]

其他 政府는 財政의 最大限度로써 產業의 擴充과 貿易의 伸長을 圖하고 國力의 根幹을 培養하야 國民生活의 安定에 資하려한다。그리고 其方策은 元來 多種多樣하나 誠心誠意로써 積極的努力을 拂하려는바이다。

一、憲法政治의 確立

我邦無比의 國體下에 立憲政治는 國民一致로 其實現에 努力할것인바 [illegible] 確定된 [illegible] 改善을 緊急하고 [illegible] 의 [illegible] 不許할것이다

各省實行豫算額內譯

【東京電話同盟】十二日閣議에서 決定된 林內閣의 昭和十二年度實行豫算(修正)에依한 歲入增減金額은 總額二億六千九百萬圓인데 前內閣에서 提出하엿든 豫算三十億三千八百萬圓에比하면 差減 二十七億六千九百萬圓으로 되엿는데 其內譯은 如左하다

豫算表 (單位千圓)

所管別	豫算案提出額	實行見合額	差引實行豫算額
皇室費	四、五〇〇	—	四、五〇〇
外務省	三六、〇〇〇	二、六〇〇	三三、〇〇〇
內務省	四二三、〇〇〇	一六二、〇〇〇	二六一、〇〇〇
大藏省	五七〇、〇〇〇	二五、六〇〇	[illegible]四五、〇〇〇
陸軍省	七二七、〇〇〇	一三、〇〇〇	[illegible]四、〇〇〇
海軍省	六八一、〇〇〇	一三、〇〇〇	[illegible]八、〇〇〇
司法省	四三、〇〇〇	八〇〇	四二、〇〇〇
文部省	一四六、〇〇〇	一、七〇〇	[illegible]四五、〇〇〇
農林省	一二六、〇〇〇	一〇、八〇〇	一一五、〇〇〇
商工省	四二、〇〇〇	一五、五〇〇	二六、〇〇〇
遞信省	二一一、〇〇〇	二、九〇〇	二〇八、〇〇〇
拓務省	二四、〇〇〇	七〇〇	二三、〇〇〇
合計	三、〇三八、〇〇〇	二六九、一〇〇	二、七六九、〇〇〇

(本計算은 計數整理結果移動을生하리라함)

修正豫算의歲入內譯

【東京電話同盟】修正豫算에依한 歲入內譯은 左와如함 (單位千圓)

	歲入內譯	提出豫算에比한減少額
一般歲入	二、〇四四、〇〇〇	一九二、〇〇〇
公債	七二五、四〇〇	七七、〇〇〇
合計	二、七六九、四〇〇	二六九、〇〇〇

紀元節勅語

【東京電話同盟】紀元의 佳節에下賜하압신 勅語는 左와如하다

勅語

紀元의佳辰에當하야 祝宴을開하고 各國代表者並諸大臣等과 此歡을偕히함은 朕의滿足하는바이다 玆에友邦의 元首의健康을祝하고 아울러交際의 益益親密하기를望함

總理大臣奉答文

【東京電話同盟】玆에紀元의 佳節에當하와 群臣을 御宴에召하압시고 또 優渥하압신 勅語를 下賜하압시니 臣等 感激에 不堪하나이다 臣 銑十郎 群臣에 代하와 聖恩의 厚하심을 謝하압고 謹히 寶祚의 無窮하압심을 奉祈하나이다

白國大使奉答文

【東京電話同盟】

陛下

紀元의佳節에當하시와 外交團代表를 召하야 本使等의 至深한敬意를 陛下께드리압고 또 貴皇室의 悠久한隆昌과 陛下、皇后陛下、皇太后陛下及皇族各殿下의福祉를 懇禱하옵음은 本使의 光榮으로 역이는바입니다 또大 日本帝國과 本使等이玆에代表하는 各國과를結合하는 親善한 友誼의 益益密接하기를 希望하압시는聖慮에對하와 本使等의 元首피압서도 亦是與心으로 陛下와其意를가치하압실것은 本使等의 確信하는바입니다

秩父宮同妃兩殿下 十一日御西下

【東京電話同盟】五月十二日英國皇帝의 戴冠式에 天皇陛下御名代로서 御參列하시는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三月八日 橫濱解纜의 平安丸으로 御壯途에 나아가게되시엿는데 이에압서 御渡英、및歐米御巡遊御奉告를 爲하야 兩殿下께서는 前田事務官、山口御附武官、山座御用取扱等을 거느리시고 十一日午後十時三十五分 新橋驛發列車로御西下하시사 十二日午前九時八分 山田御着伊勢神宮에 御參拜하실 御豫定으로 同夜는 御木本別邸에 御一泊、十三日畝傍山陵橿原神宮春日神社、十四日桃山御陵 月輪山陵賀茂神社等御參拜 京都大阪地方御巡覽後 十八日熱田神宮御參拜 同夜九時東京驛御着御歸京하실御豫定이라하신다

新稅制整理案의 暫定案大綱發表

十二日閣議附議決定

【東京電話同盟】大藏省은 十一日夜 藏相官邸에서 省議를 開催하고 馬場前藏相에依한 稅制整理案의 修正에 對하야 協議를 거듭한結果 結城藏相의 財政政策에基하야 新稅制整理暫定案大綱을 左와如히 決定發表하고 十二日閣議에 附議하기로되엿다

大藏省發表

▲臨時增稅增徵要綱

當分間 所得稅 法人營業收益稅 酒稅 砂糖消費稅 取引所稅及臨時利得稅를 增徵하고 國債利子에 所得稅를 課하고 金鑛及銀鑛에 特別稅를 課함

但右增徵額及 特別稅에對하여는 地方에잇서附加稅를課함을 不得한것으로함

一、所得稅

(一) 第一種所得稅

가、普通所得에對하야 十割의增徵을行함

이에關聯하야 淸算所得에對하여도 同樣으로 增徵을行함

그리고 國債利子에課稅하기로하고 其七割에該當하는金額을 普通所得에는 控除하야課稅함

나、超過所得에對하여는 此際增徵을行하지안흠

다、同族會社의加算增加額에對하여는 現行稅額의五割을增徵

(二) 第二種所得稅에對하여는 現行稅額의 五割을 增徵할것

그리고 國債利子에課稅하기로하되 其稅率은 百分之二로함

(三) 第三種所得稅

가、第三種所得稅에對하여는 現行稅額의 二割乃至七割(平均五割程度)의增徵을行함

所得	增徵率
二千圓以下	二割
三千圓以下	三割
一萬圓以下	四割
十萬圓以下	五割
百萬圓以下	六割
百萬圓超	七割

나、現行配當所得四割控除를 二割控除로改正함

二、法人營業收益稅

法人營業收益稅에對하여는 現行稅率百分之三、四를 百分之四로引上함

三、資本利子稅

資本利子稅에對하여는 十割의 增徵을行함

四、相續稅

가、相續稅에對하여는 現行稅額에對하야 二割乃至十割의增徵을行함

課稅價格	增徵率
一萬圓以下	二割
三萬圓以下	三割
五萬圓以下	五割
十萬圓以下	八割
十萬圓超	十割

나、相續財產價格中 不動產價格이五割以上을 占하는것은 年賦延納期間을 十年以內로함

五、鑛產稅

가、現行鑛產稅의 稅率鑛產物의價格一千分之五를 一千分之六으로引上함

나、金鑛及銀鑛에關하야 鑛產物價格一千分之十三의 稅率로서 特別鑛產稅를 課함

六、臨時利得稅

臨時利得稅에對하여는 現行稅率法人百分之十을 百分之十五로 個人百分之八을 百分之十으로改正함

七、酒稅

가、酒造稅에對하여는 大體現行稅率을 一割當引上함

나、麥酒稅에對하여는 現行稅率을 四割引上함

다、酒精及酒精含有飮料稅에對하여는 現行稅率을 二割當引上함

八、砂糖消費稅

現行稅率에 對하야 一割五分程度의增徵을行함

九、取引所稅

取引所稅에 對하여는 取引所營業稅의 現行稅率을 一割引上하는同時에 株式賣買取引에對하야 取引稅의 稅率을 引上함

▲新稅創設要綱

揮發油及有價證券移轉稅를創設함

一、法人資本金(積立金)에對하야 年一千分之一의 稅率로서 課稅함

二、外貨債特別稅

가 本邦內에서 外貨債를 取得할時에는 外貨債特別稅를課함

(一) 日本內地에 居住하는者

(二) 稅率은 外貨國債에對하여는 利率年五分을 超過하는利子에 該當하는額의十分之七 其他의 外貨債에對하여는 年五分五厘를超過하는 利子에該當하는 額의十分之七로함

三、揮發油稅

揮發油에對하야 一키로리를 十三圓二十錢의 稅率로서課稅함

四、有價證券移轉稅

有價證券의 移轉이잇슬時는 取得者에對하야 取得價格의 一萬分之一乃至一萬分之六의稅率로서課稅함

▲關稅改正要綱

一、關稅定率法改正

가、鑛油의關稅率을引上함

나、自動車部分品及 自動車用內燃機關의關稅率을引上함

다、沃度鉢布軸受及 同部分品及 카오사발三의 關稅率引上

라、變性糖蜜의 關稅率을 引下함

라、燃料用碳油의 免稅를廢止함

마、酒精製造에 供하는原料品으로 政府의 輸入에關한것은 免除함

바、製作見本用 航空機等을免稅함

사、豆原木을免稅함

二、昭和七年法律第四號의(輸入稅의 從量稅率에關한件)改正

새로 從量稅率을 適用하는自動車部分品及 自動車用內燃機關等을 別表에追加함

三、大正十四年 法律第五十一號(關東州에서生產하는物品의 輸入稅免除에關한件)의 改正

關東州에서 製造한大豆硬化油輸入稅는 全額免除에 關한法律의制定

四、鐵의 輸入稅免除에 關한法律의制定

銑鐵及鋼材의 輸入稅를 昭和十四年六月三十日까지免除함

▲輸出統制稅法의 制定

外國貿易의 進展을 圖함에必要한 經費에 充當할目的으로 當分間輸出品의一部에 左記에依하야本稅를課함

記

品名	稅率
人造絹織物及人造絹의交織物	從價百分之一
絹織物及絹의交織物 (綿染사毛及 英領印度間의것은產地의것을除함)	從價一千分之一
絹織物中羽二重及絹紬	從價一千分之五
메리야스製品	從價一千分之五
고무靴	從價一千分之五
自轉車同部分品及附屬品	從價一千分之五

郵貯利子는 二厘四毛引下

【東京電話同盟】郵便貯金利下는 前內閣의 方針대로 四月一日부터斷行하기로 되얏는데 政府는今回前內閣의 稅制整理案에對하야 修正을加한結果 銀行定期預金의 稅引利廻에도 變更을生하게되엿슴으로 十一日大藏省通信兩省間에서 協議한結果 利下利率을變更하기로 決定하엿다 利下利率은 現行三分으로부터 二厘四毛를引下하야 二分七厘六毛로 決定하리라고 傳하는바 이結果 貯金部 特別會計에서 一般會計로 繰入하기로 되엿든一千二百萬圓의 金額은 八百萬圓程度로 減額되리라고한다

蘇態度더욱頑强

商船組支店閉鎖

歐亞連絡船을事實上으로禁止

【淸津十一日發同盟】駐蘇大使館酒勾參事官의 抗議에 對하야 日本船定期航路를 禁止할 意思가 업다고 言明한 蘇聯當局은 此를 違反하야 十一日 午後二時 海參威에서 淸津에 도라온 사이베리아丸乘務員의 談에依하면 從來阜頭에 事務所를가지고잇든 商船組支店은 九日부터 阜頭의 事務所閉鎖를當하야 市中의 元組銀社宅跡에 假事務所를 내고잇다 蘇聯當局은 三月의 商船組營業許可期限滿了로써 全然閉鎖식히려고하는것으로 歐亞連絡船인 사이베리아丸에도 波及되므로 關係方面에서는 心痛하고잇다

豫算大綱等決定

十二日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廣田前內閣이編成한 昭和十二年度 總豫算에對한 修正案을 決定할 十二日의定例閣議는 午前十時二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開會、林首相以下全閣僚가 出席하야 먼저結城藏相으로부터

一、臨時租稅增徵法案要綱

一、新稅創設案要綱

一、關稅改正案要綱

에關하야 說明하고 다시이에關聯하야 賀屋次官、石渡主稅局長으로부터 補足的說明을 行하고 各閣僚의承諾을求한다음 十二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總豫算案을附議하고 同樣으로結城藏相으로부터詳細한說明을行하야 異議업시 決定하고 最後에首相外相의 施政外交方針에關한 演說草案을 諮하야 各閣僚로부터 發言이잇고 原案을 決定하야 十三日閣議에附議하기로되엿다 또藏相의財政方針演說을 紹介하야 最後的決定을 짓고 午後零時二十分 散會하엿다

豫算修正案에對해 陸軍側强硬態度

庶政一新根本義에背反된다고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修正에當하야 內務省所管의 地方財政調整交付金의大削減 商工省所管의 原料國策關係費及 農林省所管의 負債整理에關한 經費의 全滅 拓務省所管對滿移民關係經費의削減과 延期를 行하려함은 庶政一新의 根本義에 背反된다하야 依然 陸軍側에衝突을 惹하엿는데 陸軍에서는 十一日午後五時半부터 陸相官邸에서 首腦部會議를 開催하고 對策에對하야 凝議한結果

一、國防과 庶政一新의 不可分關係는 內閣이 更迭되드라도 何等變更이 잇슬수업는 鐵則이다

一、庶政一新關係의 豫算을 削減 又는延期함은 現內閣의存立理由를 否定하는것이라고말하지안흘수업다

一、現內閣에 前內閣時代의 庶政一新 七大政策에 代할新具體案이업는 以上 現內閣으로서는 前內閣이 決定한 政策을 當然히 實行함이 至當하다는데 意見一致되여 七時散會하엿다 右結果 杉山陸相은 十二日閣議에서 結城藏相에 對하야 前記各 項의 豫算削減又는 延期할 方針인가 아닌가를 質問하야 萬一藏相이 이것을 實行할意圖를 明白히할境遇에는 前述한 陸軍側의 意向을 開陳하야 藏相의 反省을 促하기로되엿는데 本問題에 對하야 陸軍部內의 態度는 相當히强硬하다

米司法制度改革案 下院에서可決 即時上院으로回附

【華盛頓十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의 敎書에 基한司法制度改革案中『大審院以下聯邦各級裁判所判事로 勤續十年에及하고 그리고七十歲에 達한後六個月을經過해도辭職지안는境遇는大統領은 追加判事를 任命할權限이 有함』이라는 右法案은 十月下院에 上程하엿든바 共和黨側으로부터 俄然反對가이러나 論戰이 展開되엿스나 表決한結果 三一五對七五의 大差로 可決되여 即時上院에回附되엿는데 上院은 右案을 目下審議하고잇다

八面鋒

◇ 結城財政은 金融人을爲한金融人의財政으로는 滿點일지모르나 農村財政으로는 落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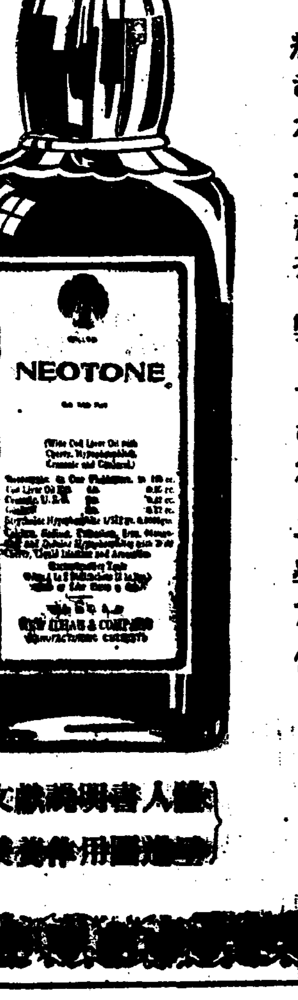
◇ 前勸銀總裁로서 馬場財政이 農村과都市의負擔公平을 期하엿다하면。

◇ 興銀總裁로잇든 結城氏가 商工中心으로 갈것도 人情上그럴듯한일。

◇ 그러나 一國의財政에 根本的基準이업서 當局者의變動에따라 이러쿵저러쿵함은危險。

◇ 政友會의新進代議士들이 政黨淸算運動을이르킨다고。

◇ 新進이라해도 舊黨員임은事實、舊黨의버릇을 그대로가지고는 所謂革新潮流에 키를잡을수잇슬가。



Doctor's Advice?

醫師의指導?

病魔와 虛弱에 苦痛하는 여러분!

病苦로 呻吟하고 虛弱으로 苦痛하게되면 누구나 다가치 病魔를 退治하고 健康을 참으로 恢復할수잇는 治療劑와强壯劑를 求得하는것이 가장 큰 所願입니다。

그러나 世上에는 病者의弱한心理를 奇貨로 삼아 所謂治療劑或은 强壯劑라고 이름한藥이 無數히製出되야 저뭇 病者로하여금 그取擇을 困難케할뿐안니라 더욱 그마음을 不安케합니다。

弊行은 우리民衆保健을爲하야于今十個星霜을두고 强壯劑로서 世界的으로 有名한 네오톤(Neotone)을 全東洋에 米國으로부터 輸入配給하야 醫療界에 끼친바 그功獻은 現在斯界에 이러난 澎湃한需用으로써 짐작할수잇습니다。

무엇보담 病者로서 참으로相議할수잇는곳은 醫師뿐이올시다 多年間科學的硏究와長久한 臨床的經驗으로써 그一言이야말노 반다시 여러분에게는 千金보다 重할것입니다。그러므로 本劑에對해서는 몬저醫師에게 仔細한 說明을 듯기를 바랍니다。

文獻說明書入用 [illegible]

外國藥品輸入 [illegible]

株式會社 [illegible]韓洋行

京城・大連・上海

百補丸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講習生募集

公認 新義州時計技術講習所

募集人員 五十名 開講 三月一日

新義州府梅枝町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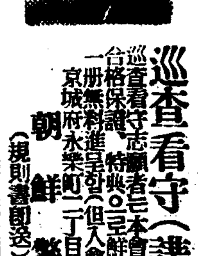
規則請求次第送呈(要二錢切手)

好壽敦 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開城府)

一學年約百名

考査 三月十一日、十二日、十三日

出願三月六日限



巡査看守(講議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 鮮人巡查試驗問題集等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書郵送) 電本(2)三〇三〇番

鋸製造卸 大工道具 卸値段表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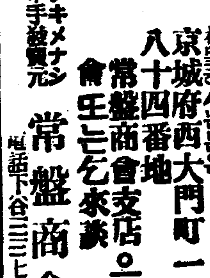
木手道具、理髮器械、金物一般

專門製造直賣、信用廉價日本一

大阪市東區[illegible]

武村製作所

電話一七八五番 振替大阪七六四七〇



軍手

이은자리업는軍手의 製造家募集

希望하시는분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八十四番地 常盤商會支店으로照會

ツキメナシ軍手發賣元

常盤商會 本店

電話下谷三三七一

中耳炎

그대로두면큰일

耳鼻病은直時腦에이르러、더욱이 中耳炎은生命에까지危險하다。輕症인때에 獨逸ポリッエル博士가 處方한權威잇는本劑로完全히곳처야한다

第一評判 이잇는外用塗布劑

大木耳鼻藥

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円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耳

鼓膜破裂『귀질알는사람은念慮無用』 人工鼓膜으로 即席에서드를수잇고 外耳에드러나지안는다

大阪市北區[illegible] サンセイ商會

[illegible] 約束手形 紛失廣告 [illegible]

忠南舒川郡[illegible] 朴永泰 白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新富座 電本2 三七

[illegible]

分離引繼不思는全無 宣敎會側明文提示

崇專敎授團의決議文에對한文書回答

一校分離經營은絕對不可能

業實三校問題에斷案!!

【平壤】 숭전 동회와도가티 운명의귀화를 고 하고잇는 숭실전문학교(崇專)숭실중학(崇中)숭의녀학교(崇義女校) 등세학교의 인귀를 보호기위하야 각방면에서이 세학교문제를 유리하게 전개식하고저맹활동을하고잇거니와 이미 전반사회의공정한여론은말할것도업고 인계문제에 잇서서 절대 책임을가지고잇는 선교회 실행위원회와 평양 "스레슌"회에서도 합동경영을 전제로하고 모든문제를 해결하기로되여 어떠한정도까지 교섭이진전되고잇서 과연 피차의아량잇는 견해로 세학교문제가 신입생모집기간의마두와가티 가장단시일안에 급속한해결이잇기를 고대하게된다 이제 재경숭실교우회(在京崇實校友會) 평양숭실교우회(平壤崇實校友會) 숭전교수회(崇專敎授會) 등 각단체에서 실행위원장 소열도(蘇悅道)씨와 회견한내용과 재경숭실교우회대표 김명선(金明善)정재흡(鄭在洽)량씨와 관계당국과의 회견문답기등을 일일히 보도하면다음과가타서 숭중분리파에서 력설하는 일교분리경영(一校分離經營)이가능하다는문제 신입생을 모집할수잇다는 문제또는 기타의세학교인계를 둘너싸고 이러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단안(斷案)마해석율할수가 잇슬것이라고관측되다

숭전교수단에서는 십일일오전열한시부터 긴급교수회를소집한후 항간에 전해지고잇는『각학교의개별적인계(各校個別的引繼)의가능여부』에대한 선교사회의 책임잇는 답변을 구하기로 가결하고 리훈구(李勳求) 최윤호(崔允鎬)량박사를 대표로 선정하여 결의문을 선교회에 수교하여 즉각회답을요구했든바 선교회에서는 실행위원장 소열도(蘇悅道)씨가 소집한긴급회의에서『선교회실행위원부는 삼교를 개별적으로 각기다른 시기에각기인계할의사가 전혀업스며 또한 그와가티 수속의길을 선교회가 미국선교회본부에 권고할 의사도 전연업슴을 명언한다』는 회답을 오후다섯시삼십분경에 교수회량대표에게 전달햇다 이제 실행위원장 소열도씨의 성명한 회답전문을소개하면 사진과 갓거니와 숭전교수단에서는 전번에발표한 성명서(聲明書) 결의문(決議文) 금일까지의 경과 선교회측태도를 하나도빼놋치안코 장문의성명서를인쇄하야 화무형은물론 전국각지에발송하기로되엿다 (寫眞은蘇實行委員長이崇專敎授團에手交한全文)

崇專敎授團의 質問全文

우리의 敎育事業을 爲한宣敎會의 誠意를 感謝하오며 現在 여러분께서 當面한 이 어려운 問題에 對하여 깁히同情을 表하옵니다。本敎授會는 이問題를 正當히解決키爲하여 最大의協力을 드리고저하옵니다。

宣敎會의回答全文(譯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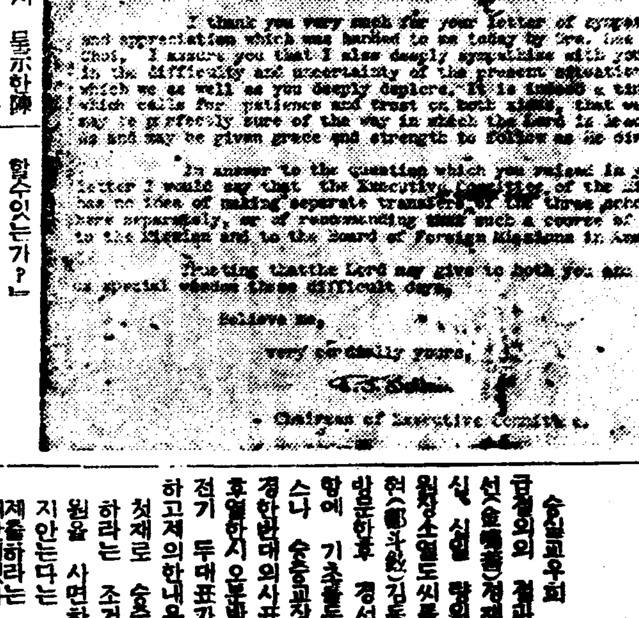
여러분의 편지는 感謝하오며、여러분과 우리가 다가티 걱정하고잇는 이 現在의 難境과 不安에 對하여는 나亦是 여러분께 깁히 同情하옵니다。 貴側에서 提出한 問題에 對하여는 左와가티 回答하옵니다。

『宣敎會實行委員部는 三校를 個別的으로 相異한 時期에各히 引渡할 意思가 全혀 업스며、또한 그와가튼 手續의길을 宣敎會와 米國宣敎會本部에 勸告할 意思도 全然 업슴을 明言함』

二月十一日

宣敎會實行委員長 蘇 悅 道 (署名)

崇專敎授會 貴中


EXECUTIVE COMMITTEE

To the Members of the Faculty of the Union Christian College, Pyengyang, Chosen.

Gentlemen,

I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tter of sympathy and appreciation which was handed to me today by Drs. Lee and Choi. I assure you that I also deeply sympathize with you in the difficulty and uncertainty of the present situation which we as well as you deeply deplore. It is indeed a time which calls for patience and trust on both sides, that we may be perfectly sure of the way in which the Lord is leading us and may be given grace and strength to follow as He directs.

In answer to the question which you raised in your letter I would say that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Mission has no idea of making separate transfers of the three schools there separately, or of recommending such a course of procedure to the Mission and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in America.

Trusting that the Lord may give to both you and to us special wisdom these difficult days,

Believe me,

Very cordially yours,

Chairman of Executive Committee.

再昨日 學生會에서 呈示한陳情書는 보섯슬줄 아오며 學生들이 아즉도 모다不安中에잇사온데 左記問題에 對하여 貴會의 具體的明答을 書面으로回示하여주시기 바라옵니다。

『三校中의 어느 한學校만을個別的으로 相異한時期에 引繼할수잇는가?』

(이를테면、崇中부터 몬저引繼하고 그다음 어느때에 崇專、또그다음 어느때에 崇義 이모양으로 따로따로 引繼하여줄생각이잇는가?)

二月十一日 崇專敎授會

宣敎會實行委員長 殿

"生徒不募"는事實 辦法은생각지도안헛다

【蘇悅道氏와在京校友會代表問答記】

재경교우회대표 김、정량씨는 십일일오후세시부터 한시간이십분동안 경영인계문제의 열쇠를 잡고잇는 선교회실행위원장 소열도씨를 면회하고 다음과가튼 취지의문답을하여 분리경영의불가능 신입생모집의불가능 륙히 조선일보지상에 소개된것이진상이라는점을 고조하엿다

대표＝세학교를 구제할수잇는재벌이인계할때에 숭실중학일교만의 인계를할수잇는가?

소씨＝절대못한다 선교본부로부터는 세학교를경영하라는것이아니다 조선인에게 인계햇스면 어떠한가를 청훈(請訓)하는것인데 조선인의 의견들일치로 청훈할 신념(信念)조차 나지안케되엿다

대표＝이후에 숭의와숭의 재단이성립되고 숭전의재단이성립될때 그래도 두학교만인계할수잇는가?

소씨＝그것은 절대로 할수업다

대표＝정교장은 숭전교육이란 중요한교명외하에서만 생기는것이아니다 그것은엇덧가?

소씨＝나도잘안다 그러나 장차 교회에서 분리되는것만은 다소섭섭하다

대표＝신입생은 모집하지안는다니 사실인가?

소씨＝그러타

대표＝엇쩐 번법으로 모집하는것을 방해할수업나?

소씨＝생각도 해본일이업다 아마불가능할것이다

대표＝어떠튼지가 세학교인계변이외생모집에대한경상비(經常費)외책임을지고하는때에는 엇더케하겟는가?

소씨＝그것은모른다

대표＝숭중방면에서는 조선일보에기사가 오전(誤傳)이라하는데 엇더케 생각하나?

소씨＝나도읽엇지만 전부사실이다

대표＝정교장에게 분리를할선산인가?

소씨＝절대로아니다

대표＝리승길(李承吉)씨태도에엇더케생각하는가?

소씨＝날부다고 생각한다

대표＝선교회로부터 세학교인계에대한 책임잇는 예스와노ー를분명히 해달라

소씨＝분명히하겟다

대표＝그러면 세학교는 메교할의사인가?

소씨＝경영자가업스면 메교할작정이다

대표＝정교장이 그냥버티는경우에 분리를 허락할수잇는가?

소씨＝세학교는 여전히 분리인계는할수업다

대표＝이약속은 엄후에법적문제(法的問題)가이러날때에도 절대로번복하지안켓는가

소씨＝물론이다

在京校友會代表勸告를 鄭校長全部拒絕

숭실교우회 경성지부에서 긴급회의의 결과로 파견한 김명선(金明善)정재흡(鄭在洽)량씨는 십일일 량일간 선교회실행위원장 소열도씨를 비롯하여 정두현(鄭斗鉉)김동원(金東元)씨등을 방문한후 경성에서 결의한 조항에 기초를둔 타협안을 제출하엿스나 숭중교장 정두현씨의 강경한반대의사표시가잇서 신입생모후열하시오분발렬차로경성에올라왓다 전기 두대표가 정교장을 방문하고제의한내용은 첫재로 숭중분리운동을 양보하라는 조건을밀두로 경영위원을 사면하라 숭전도 죽이지안는다는 성안서(成案書)를 재출하라는 조건과 숭중분리단이잇다면 세학교를 인계할수잇는재단과합작하야 숭중의 리사장은 그사람에게주라는조건등을 제의권고하엿스나 정교장은 전면적으로 이를거절한바되여 아모소득업시 발길을 돌렷다

崇實校友會 代表도蘇氏訪問

평양숭실교우회간사회에서 파견한 채필근(蔡弼近)우호익(禹浩翊)배천연(裵天然)오윤선씨도 십일일중에 선교회대표 소열도씨를 방문하고 신입생모집 석이잇는인계를희망한다는등 문제로 대담을 구하엿는데 역시 재가튼 대답을햇다 한다

在京校友會代表를 警察이 呼出聽取

재경교우회대표 김、정 량씨를 평양서에서 불러다가 상세한회견전말을 청수천(淸水川)고등계주임이 청취한바 잇섯다

天氣豫報

概況 七八四粍의 高氣壓은 蒙古로부터 滿洲、朝鮮에 떠지어잇고 七五八粍의 低氣壓은 東支那海와 四國의 南海上을 東進하는中이다。 滿洲及 北朝鮮은 晴、半島中部는 雲、南朝鮮은 降雨、琉球諸島는 晴、日本內地는 호리고 處處에 降雨가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後 西北風이 불고 曇天이다。明日은 北西風이 불고、개이나 치웁다。京畿道全區도 마찬가지다。

昨日 最高 六度五

同 最低 一度二

今朝 最低 零下一度七

今日 正午 零下〇度四

記錄的인昇給

金融組合書記의月給이 初任에二割五分引上

최근강종을가등귀로 각방면월급쟁이들이 막대한위협을늣기는이때에 금융조합서기들에게 명랑한소식이잇다 전조선금융조합(金組)에서는 출선하야 조합서기의 월급을올리기로 결정하야 초임이삼십원을 일약이할오분을인상하야 삼십오원으로하야오는 사월부터실시할터이다

元町에火災 乞人火傷

십일일 오후일곱시십분쯤에부내원정(元町)삼정목오십칠번지곡물상 김무경(金武敬)집여관빈터에 겨울 싸노흔 곳에서 발화하야 이급보를듯은 소방서에서는 소방자동차 다섯대와 소방수 오십여명이 급거하야 진화에 힘서 동 사십오분에진화되엿다는데 원인은 본적을충남옥천군동이면금암리(沃川郡東二面金岩里)에둔 주소부정의 걸인 박희순(朴熙順)(二○)이가 치웁듯이겨 맵겨겨해불을 놋코 조이다가 그저자버린것이 그와가티 대소동을 이르켯다하며걸인 박희순은 전신에 화상을입어 곳 원정일정목에잇는 십자병원(十字病院)에 데려다가 응급수당을한후 불교자제의원(佛敎慈濟醫院)에 입원가료중이라하며 회재에의한 손해는 사원가량이라한다

舊正晨曉에 鐵路에뛰여든 젊은夫婦

家庭不和를淸算코저

십이일 오전한시반쯤에 개성(開城)을떠나 룡산으로가든 회물렬차가 개성부내 한천(寒泉)철도건널목으로 진행하는중조선사람 젊은남녀가 그렬차아페 뛰여드러 남자는 원편다리가끈허지고 머리가부서젓스며 녀자는 머리에만 중상을입어서 방금 개성도립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생명은 두명다구조될모양이라한다 개성경찰서에서 조사해본결과 남자는 개성부 남산정(南山町)일백팔십번지에사는 개성부청자동차운전수 김련연(金連衍)(二三)이오녀자는 그의안해로당산정일백칠십사번지에사든황금순(黃今順)(一九)으로 부부간에 정사를 할려고한것이다 원인은음력정월에 남자의 전처가 차저왓기때문에 가정의 불화를이르켜두사람이 세상을 비관하고자살을 도모한것으로 추측된다고한다

中樞院에서도 通譯制度를廢止

국어모르면 참의도어렵다

貴族參議에겐無妨

남총독의 국어철저보급주창로 각도회(道會) 읍회(邑會)의 통역폐등 가지에 국어보급운동이자못맹렬함에따러 총독부에서는 중추원(中樞院)에도 참의회의(參議會議)때에 통역을 폐지하는동시에 현재귀족참의를 제하고는 중앙참의나 지방참의를 물론하고 국어를통하지못하는사람은 임명하지아니할 모양이다 현재 각지방에국어를 통치못하는 참의가 상당히만흔바 이들도이번임기가지나면 다시는 재임명되기 어려울모양이다 그리하야 각지 중추원참의운동에는 다른것도 중요조건이겟지만은 국어공부가또한 중요한 준비공작의 하나이게되엿다 중추원참의는 조선최고의 공리(公吏)로서 종래는 경험기타여러가지사정으로 대개 로인급에서 임명하야왓슬뿐아니라 현재참의들도 통역을 폐지하야회의때에 물론자기의사를 하나도발표할수가업슬뿐아니라 남이무슨말을하는지알수가 업슴으로 전조선각지에는 아、이、우、에、오 를열심으로 읽고잇슬백발로인회도가생길날도멀지안케되엿다

大竹內務局長談 이에대하야 중추원서기관장(中樞院書記官長)을 겸한총독부대죽내무국장(大竹內務局長)은 다음마갓티말한다

중추원의 통역폐지는 시대상으로보아 당연한 일이다 현재참의 들은 임기 중에 잇스므로 임기동안은 엇지할 도리가업스나 이번 임기만 지나면 국어를 통치 못하는사람은 자연 업서질것이다 특수경우 즉 조선인 귀족에 한하야는 사정이 다르므로 엇지할수가업다。현재 중추원에 통역관이 잇스나 이것은 각조선구가정에 가서 무슨 재료를 조사하는 경우나 또는 국어를 통치못하는 조선인이 와서 무엇을 뭇는다든지하는 경우가 만흠으로 그대로 두는것이다。

停電

십일일오후아홉시십사분부터 가튼아홉시사십오분까지 경성역(京城驛) 고시정(古市町)일대가 정전되엿는데 전차는 최초약십분간만 운전하지 못하얏스며 이정전의원인은 부내화천정(和泉町)에잇는 변전소(變電所)의 변압기(變壓器)가고장이생겨 그가티 정전된것이라고한다 그리고 이상구내에는정전된 삼십분내에 별이상업섯다고한다

連絡船缺航

慶南沿岸一帶暴風

【釜山支局電話】 십일일오전세시쯤부터 경남연안일대에는 강렬한폭풍이불기시작하야 풍속은초속(秒速)십사미돌을보여 이날오후여덜시쯤은 풍세가좀완화되엿스나 경남연안의 각선박은 일제출항을못하고잇는형편으로 십이일오전여섯시부산에입항할 경복환(慶福丸)은 하관을출발치못하고 십이일오전열한시부산을 출발할 덕수환도 풍랑이심하야 출항을 못하고 부두는승객들로 잡답을 이루고잇다

漁船에서發火 三名燒死二名重傷

舊正初方漁津의慘事

하관시강본팔랑씨 소유어선(下關市岡本八郞氏所)약월환(若月丸)ー십륙톤ー은 선장 경남통영군일운면외룡리(慶南統營郡一運面外龍里) 리재룡(李在龍)씨(五一) 이하 승조원과 송객등 이십명을태우고 경북수룡포(水龍浦)에서 울제도(蔚濟島)로 가는도중 풍랑을맛나 방어진(方魚津)에기항중이든바 십일일오전령시반에 배중간이선실에잇는람푸로부터불이나서 배를전소하고미처피하지못한세명은 불에타죽고 두명은 중상을당한후 동이십분에 진화하얏는데 손해는조사 이후

시골친구 안해차준이야기

하마트면노칠뻔한것을 악도써볼일•鬼女退散

울렴정초에 도업고 마누라까지 빼앗길번한 불상한사나히가 잇다ー십이일아츰 열한시쯤에 종로(鍾路)네거리화신(和信)압길가에서 시골젊은청년과 입술이피투성이가된시골녀자와 얼굴녀급비슷이 몸치림을한녀자가 한차서 서로 눈을부라리고욕질하며 봇들고 따리는등 일시는 수만흔군중이 구히여서 구정초부터 이에 … 나하고 … 이루어 종로서원이 취조하여본결과 남자는 충남홍성군홍동면대녕리(忠南洪城郡洪東面大寧里)에사는 리성구(李聖求)(二三)로 시골녀자는 그의처 리덕영(李德永)(二一) 녀급비슷한 녀자는경남밀양읍(慶南密陽邑)에서『카페』를경영하는김순녀(金順女)(二○)으로판명되엿스며 그들이차오원인은 작년가을 전기리덕영이가남편을 떠난후 사방으로 그의행방을 차첫스나 전혀소식이업는중 바로 어젓게 울렴초하룻날그가 인사정(仁寺町)이백오십오번지에 숨어잇는것을 알고다리려가니전기김순녀이가 전채칠십원이 잇스니 다리고갈려면 돈을내고가저가라고 야단을 치는바람에시골사람인 그는엇절줄 모르고 잇스랴니까 그냥 쫏차내기에 할수업시 경찰서로 가려고 전기와가티 싸운것이라고한다。그리하야 그서에서는 친권자의 승락도업시 시골녀자를 고용게약한것은 김순녀이가 잘못하엿다하야리덕영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도록 하엿다고한다。이리하야 시골사람은 겨우 자기마누라를 찻을수가 잇섯다고한다。

三越百貨店 強盜에게七年役

京城地方法院의求刑

지난일월구일 부내삼월(三越)오복점에 침입하여든과도 부내아현정(阿峴町)산(山)칠번지의이십구호절도 전과이범국수덕(李壽德)(二七)에관한 절도및강도 상인피고사건 공판은 십일일오전 열한시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김(金)검사관여미에열리여 재판장의 간단한사실심리가 잇슨다음 검사로부터 칠년징역 구형이잇섯는데 언도는 오는십구일에 내리기로되엿다 범죄내용은 지난일월구일오후 여덜시삼십분쯤하야 부내본정일정목 삼월오복점 사층에침입하야하모니카한개를 훔치고 다른물건을찻고잇는중에 점원에게 발견되자 비호가티 층대를 뛰어내려가서 지하실변소천정에 숨어잇다가점원신대길(申大吉)에게발견되여붓잡피게되매 피고는 쇠뭉치로 신대길의 등어리를 때리고 또 주먹으로 가슴을 질러 약일주일이상 치료할상처를 내이고 다러나든중 떠드는 소리를듯고 뛰어온점원들과 맛청변다원에게 에워싸혀 붓잡혓는데 그는 이외에도 일월일에는 역시 삼월삼층에서 모자한개를 훔치고 또 작년십이월일에 십일일오전세시쯤에는 삼중정백화점에 침입하야 의류한벌을 훔친여죄까지판명되야 절도및 강도상인죄로 범정에서게 된것이다

映畵、演劇等興行場 取締規則大改正

四章五十條•四月부터實施

현재까지 경기도내의 영화연극등각종흥행은 대정십년사월에제정된 도령(道令)에의하야그 취체를 바더오던터인데 이도령이 실시되지벌서 십오년이나지나게되여 영화는물론 각종흥행물의 발달은 실로괄목할바가잇서 현재의 흥행물을 십오년전에제정한 규측으로 취체해나갈 수가업서 이번 경기도보안과에서는 그취체규측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방금현상에 적응한 도령을 초안중인데 이번제정되는 신규측은 사장(四章)오십여조문으로서 극단취체변사면허제도폐지 극장의환기장치 까여실설치 넘은좌석의 설비등등 참신한것이만흔데도지사의결재를거처오는사월부터 실시되리라고한다

樂器店火因은 電氣盜用에서?

기보＝십일일 아츰 종로(鍾路)삼정목이십팔번지 일신악기점(一信樂器店)김태준(金泰俊)의상점에 불난원인에대하야는 소관종로서에서 관계자를 다려다가 취조중이라하든 작보한바이지만 취조한 결과 김태준이가 일천오백『와트』의 전기를 도용(盜用)한사실이 판명되여 그곳에서 불이난듯하다고하며 게속조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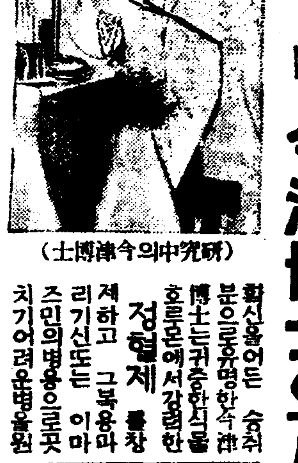
猩紅熱患者收容

기보＝성홍열(猩紅熱)로 순화원(順化院)가기가 실혀서 다라난 강목단(姜牧丹)(二○)은 십이일 아현정(阿峴町)사백륙십칠번지의구호에 숨어잇는것을 발견하고 곳 순화원에 수용하엿다고한다

山寨의土兵을 猛擊潰走

【哈爾濱十一日發同盟】 련소(連沼)부대의소림(小林)○대는 팔일오전 일곱시삼십분 오상흥회전(五常興花甸)부근에서 비충신(費忠信)로병 약오십명이 모혀잇는 산채를 발견하고 맹격한결과교전다섯시간만에 토벽을 격퇴하얏는데 이전투에서 상등병평야구일(平野久一)외이명은 전사하고 삼명은 중상하얏다

喘息·神經痛 中風·高血壓 原因「부터治療하는」今津博士의새로운療法 不治아니다


(硏究中의今津博士)

이병은 주연초、회류병、위장병 당뇨병、신장병、감기여환등신체를기르는 중요한혈액이탁하야순환이낫버지고 신경을침범함으로 원인을 만드는탁한혈액을정화하야 동맥경화의원인을업새고 협압을정조、순환을조케하야 신경의장해를 제거하면낫는것이니결단코불치가아님을 다수실험으로 인부터조케하고 펵깃버한다 中風 으로 불수、혀구듬、고혈압、동맥경화、견비통•이명•두통、현기、동기변비불면신경쇠약족증마비、뇌일혈의위험이잇는사람 喘息 기침、담、숨가뿜으로끈란、씨ー씨ー하야 괴로워하는사람

확신을어든 승취분으로동유명한今津博士는귀중한식물호르몬에서강렬한 정혈제 를창제하고 그복용과 리기신또는 이마즈민의병용으로곳 치기어려운병을원 神經痛 이나 류마치스로 수족요、관절염으로 곤란을밧는사람은 엇는 大阪市阪急線三國驛側今津硏究所로 주저말고 기온는지 조선일보독자라고 기입하거나 조선일보를오려서 중상에 표를하야 편지로급히신입하면 박사독특한 정혈요법、양생법 기타주의사항을 똑똑하게일녀준다。동소를방문한필자는 지실한 연구에경복을하는동시에 전국각방면의치료자에게서온 감사장에는 놀래지안흘수업섯다

姜耳鼻咽喉科

醫學博士 姜日永

京城仁寺町一一三七 電光二六六五番

入院室完備

男女 淋疾 蔘茸五淋錠

肥滿劑

身體搜瘠하야困難한分은 여러가지療養도無効하던 身體를健全하게하며 … 東京市麻布…町七十一 小川藥院

中古各種機械賣買

무슨中古機械든지 賣買하실것이잇스면 問議하시압 迅速히 賣買합니다

京城府觀水町一二六 中村鐵工所販賣部 電話光二三五九四番

朝報案內

電話 商品券、賣買、金融 市內南大門通二丁目 一六番地 柳商會 電本3322

恩給 最大長期로 特別立更 旣往他에立替한件 又增加立替諮問 京城府光化門通一四七 朴商會

樺太廳官營 海狗腎 新品到着

明治四十四年日、英、米、露四個國의條約에基한全世界에唯一한元素! 堂々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이로두고하는말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朝鮮釜山府草梁町 電話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一番

老少를勿論하고 陽氣업서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天惠的靈効를 가진樺太廳官營捕獲眞品海狗腎이到着하얏슴니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內容說明書請求하시면 無料進呈함

京城鍾路二丁目 完全修理 時計 普信堂時計舖

マツミ ポマード 香油

感氣、熱氣에 ハカリ印 헤부린 ヘブリン丸

일하는사람에게는 모도다갑시싸고効力이놉흔것이ー조흘것이다…單手와가티…헤부린丸과가티…

大阪北濱 藥天堂株式會社

495

光武劇場

舊正月一日부터 三日間特別大興行 每日晝夜二回 낫一時 밤七時三十分

全發聲 노래朝鮮

大名篇 榮光의道(帝王의길)

無理矢理一萬哩

團成社

舊正特別大興行 二月九日封切(五日間) 每日十時半 一時半 六時半

RKO라디오社超大作 미리암·오·쿠파 總指揮 로이드·코리간 監督

新興키네마大作 춤추는海戰

豪快男一代(前篇)

中央館

十一日ヨリ五日間 晝夜三回

パラマウント超特作 ゲーリイクーパー マドレーヌキャロル 主演 ▲將軍曉に死す

PCL超特作 藤原釜足 岸井明 主演 ▲風流艶歌隊

東日、大每 國際ニュース 大人五〇、學生小人三〇

ワカゲキ

十一日ヨリ十三日マデ四日間公開 本週舊正月に依り特に 階上、階下二十錢均一

鳥人ハヤブサヒデト大猛演 暗黑街の人氣男 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京城內鮮館第一封切映畫 メエ・ウエスト主演 わたし貴婦人よ

阿部九州男木下愛藥主演 ぐでん流酒合戰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六、五〇

永樂町 本二〇一四 中央館

効力斷然第一

人生의再逢春

●嚴冬雪寒이라도 日光照明과 煖房裝置를適當히 하면 서리맛고 시드러말라진草木도靑々한줄기와 紅花綠葉의滿發을 볼수잇스며

●사람도 全身이 虛弱하야 精力이마르고 氣血이 枯渴되고、筋骨無力、早老、陽氣無能、神經衰弱、胃腸衰弱、肺病等의모든 虛弱症勢로 거어廢人이된사람이라도、百補丸洗禮를바드면、모든虛弱症勢가 一掃되고、血、肉、骨、精이 生々復活되며、更生의紅花綠葉가치 意氣洋々한 人生의再逢春을 맛게됩니다

●新年새해에 第一먼저 이러케조흔 百補丸을 쓰서면 活氣洋々한몸으로 今年의모든 事業도 全部大成功이됩니다

第二八二二八號　日本政府特許局登錄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一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

最高의名藥이기때문에
最大의賞讚을밧늡니다

葛玄眞人百補丸
古今東西最良劑
李王職典醫 洪在㬀

漢方醫藥界의 最高權威시요 李王職大官名位의健康을 擔任하고게신 現李王職典醫 洪在㬀先生께서는 누구보다도 百補丸의效力과眞價를잘아심으로 同胞에게만히 推獎하시며 이와가티 古今東西最良劑라고 칭찬하십니다

萬金不換의此事實

보시요！朝鮮의貴族、兩班、大臣을비롯하야各界朝野名士의 最大賞讚 愛用推獎을밧는補藥은事實 百補丸뿐입니다

▲돈잇고 地位잇는 貴族名士들의 推獎文과 賞讚은絕對로 千金萬金으로 살수업는것이 事實입니다

▲돈보다도 名譽와 地位가 그분들의生命이며 무엇보다 第一尊重하고 貴한것입니다 이러한분들이 一個藥會社의營利를爲하야 私情과 돈에 팔니여特效가 無하고 高名치안흔藥을 거짓賞讚과推獎文을쓸理는 絕對萬無합니다

▲오즉 百補丸의 卓越한效力이 實로國民健康上에 必要하다고 認定되엿기때문에 이러케 貴族名士諸氏께서이가치 最大한 推獎文을 眞實한마음으로 써주시게된것입니다

▲이것이 補藥界의 大王으로 君臨한最大의効力을 가진 百補丸이아니면 어들수업는最大의榮光이며 最大名譽입니다

▲그럼으로 百補丸의 效力은 只今다시 區區한 說明을할必要가업사오니 廣告보다 實際事實을 밋고쓰시요

▲世上에는 別別虛無誇大한廣告도타만흐나事實百補丸과가치 効力조흔藥은다시업슴니다

人生의再逢春은百補丸으로！

身體虛弱이 過度하여저면 後悔莫及이요·百補丸一劑 못쓰면平生의 恨이됨니다
健康長壽·富貴榮華·所願成就가 모다 爲始健康이니 곳 百補丸을쓰서요

000923

百補丸의効力은이러케광장합니다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虛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下초가恒常濕冷하고 腿腰痛으로고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 체증、속병、등으로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沽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되지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저고힘이생기고順借力이됨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 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발가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짐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말 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 增加되고 陽氣가 大壯됨니다
一、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떠욱速效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絕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淋疾도 消蕩됨니다
一、男女老少를勿論하고 弱한분에게는 第一엽니다

藥價 一劑 特價 拾圓 / 重用 貳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 共同注文周旋하시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藥注文送金은 左記三處中便宜한곳處에
一、振替 京城 五番
二、朝鮮銀行本店內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平和堂

重要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商工獎勵館及商品陳列所
四、京城驛

全國優秀藥店에限하야特約販賣店募集中

堂堂第一·속일수업는事實

藥業界有史以來百補丸에 最高賣上記錄！

그原因은効力斷然第一인까닭！

京城四大郵便局의發送數字가證明

●朝鮮에서 過去數十年間 여러가지 新舊補藥이 輩出하야 各處에서 큰廣告도 만히할 일여잇지만은 그賣上高에잇서서는 百補丸이 斷然！ 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내고잇습니다。 이것은 京城四大郵便局의 發送數字가 事實을 證明하는바이니 疑心할수업고 속이려야 속일수업는 堂々한事實입니다。

●百補丸이 이러케 비빨치듯 大大的歡迎을밧는 理由는 무엇보담도 第一 効力이卓越하고 第一信用이 큰까닭 입니다。

●그러므로 百補丸은 貴族、兩班을爲始하야 京鄕各界 朝野名士諸氏의 最大賞讚과 推獎愛用을밧는바이며、萬人이 다투어服用하고 서도 激讚 感謝 하는바입니다。

●世上에서 廣告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크게낼수가잇지마는、그卓越한業効에對하여는 洋의 東西와 學博士를勿論하고 누구나 마음대로 絕對的할수업는것입니다。 百補丸이 朝鮮에서 第一만히팔니고、第一信用만코、最大의 歡迎과 最高의推獎을밧는것은 오즉 百補丸이 補藥界에서 有史以來에 그効力이 가장偉大한까닭이며、廣告가 큰까닭이아닙니다。

●百補丸은 이와가티 効力으로나、信用으로나、賣上으로나、무엇으로나 斷然補藥界에 堂々第一인것이 속일수업는 事實로서 確定되엿스니 이제부터全服藥家의疑心은 一掃되엿슴니다

服藥家疑心一掃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 (前中央日報社跡) 振替五番 · 電話光長六三二番

눈의 국경

오늘날 도시(都市)의 문화은 전기나 『라듸오』나 전신 전화가자랑이아니라 실상 그리면에 가리워서 주리고 헤고 시드는 여공(女工)들이며 문명의혜택은 커녕 도리어 저주를밧고잇는빈민(貧民)의 그네들입니다。 이가엽슨이들이만흐면 만흘수록 그도시는 떼욱아름답고 빗나고 찬란한 룸을 이루게되지안습니까。

이때까지 부(富)의력(力)을설파한이는만치만 빈(貧)의력(力)을말하는이는 업습니다。그러나 시험하야보십시요 눈아페나타나는 저 악박골빈산에 재비등후리가티 집놋어리고 옴은마나 어련새악시가 배여져되는 어롱비탈길로 롬을 저나르든 그위대한힘이 어디서나왓스며 운동의 이삼십전버리에 손톱이 달토록 발을 고르든 부녀자의 절대한 인내력이 어디서생긴것입니까。 모두가 다 가난의힘입니다。 멀리는 만리장성도『수에즈』운하도『아스완ー』뇌의 수문(水門)도 애급의금자탑(金字塔)도 『로마』의 문화도 다 가난의힘이요 노예(奴隸)의 힘아닌것이 업습니다。

빈궁조선 ー 결코 낙심하지안습니까

×

이러하고보니 남이못먹는 떡국을 나만먹는구나! 하는생각에 목구멍에 떡부러너머가지안는떡정도 물리하고 나려가실수 만히 잡수십시요。

숩니까 우리 새해에는 부자가 되십시다。

부자가되랴면 훈히 하는말에 빈부귀천이 돌려바퀴돌듯한다고 남이망하고 내가흥한다든가 내가 때가흥하는통에 남이횡재를 하게되는 그따위부자를바란다면 차라리 빈궁조선그대로가 소원이겟습니다。

신문지로서탄경제

못쓰는 신문지를 모아서 물담은 빠께스에 담거두엇다가 꺼내어 될수잇는대로 딴딴하게맙니다 그리고는 만것이 풀리지안토록 군데군데 실로 천천감아서 몃해말렷다가 때어보십시오 석탄에서거서 때시면 석탄이 여간경제되지안습니다

할말•안할말

아교가튼금실도 멧마디 말로ㅣ 천리 만리

엣꾸중에도 "침묵은금이라고" 내외간부터 주의하자

내외간일망 ᄯᅢ 가까운 사이가 하겟습니다까만 고가까운 내외간에도 할말이잇고 안할말이잇습니다。 더퍼놋코 속을 다 털어놋는다고 함부로 말을하다가는 도리어 공연한 의심과 쓸데업는 혐의를 바터서 고만 아까운 금실이 천리 만리 멀어가는 예도 업지안습니다。 그러타고 남편의 눈을 가어가며 살살 속이라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속이는 그것과 말을 함부로 안는 그것과는 한늘과 땅의 차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차이를 가집니다

과거의 련애문제와 가튼 것은 가장 주의에 주의해서 입바게 내지 안토록 해야 합띠다。 가령 결혼전 서로 친하게 지내든 이성의 친구가 잇섯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조금도 업습니다。 한번 결혼한 이상 자기 자신으로서도 깨끗이 이저버리어 두번 다시 기억할것이 못 됩니다。 더구나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 노하면 누구나 그다지 유쾌차는 못 할것이 사실입니다。 또그 남자가 차저오더라도 남편을 위하야 만나지 안는것이 정당한 일이요 길까에서혹 만나서 인사를 하더라도 남의 안해된 몸으로서는 전의다른 사람가티 정중히 하는 것이 때떳한 노릇입니다。 조금이라도 련련한 기미가 잇서서는 쓰지 못 합니다。

×

결혼전에 정조를 깨트린 일이 잇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만흘터 대체로 본저 고백할 필요는 업다고 생각합니다。 추후해서 만일 남편이 알게 되거든 그때가서 리혼을 각오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도 늣사 안습니다。 그런 허물이잇슬수록 전심전력을 다하야 남편을 섬기십시요。 그러케 정성을 다하는 안해를 결혼전의 허물이 서 꼿 갈피서기치게는 못 하오리다。

×

저엽을 가진 부인네들은 밧가 나다니다가 흔히 친절하게 구는 남자가 엇떠라도 그런것을 이야기할필요가 업습니다。 듯는남편으로서는 친절히 구는 그속노릇을 더좀 복잡하고 더좀 괴란하게 생각하지말란법이 업습니다。 그것도 그러려니와 애당초부터 남의 남자가 친절히 구는것을답게 바떠출것이 아닙니다 그사람이 과연 어떠한 조건으로 그러케 구는지도모를뿐더러 말을 조와하는세상사람의 이목도 재미업는것입니다。

×

그리고 옛말에도 군자(君子)는 경지간 쪽 부어에를 들어 가지 말라고 한것과가티 남자가 부인네의 려역을 침범할 일이 아닙니다。 요사이 부인네중에는 사랑에서 옷짓고 옴식하는것까지 다 알어 노호니 자기는 할 일이 업다고 비관하는 분도 업지 안습니다。 서로서로 말이 적어야만 금실이 더 두겁습니다 말이란 피상해서 만흘수록 말기회도 적게 해야 되고 말하는 려역도 적게 해야만 됩니다。 요사이 내외간의 싸움이란 만히 쓸때업는 잔소리로부터 일어나는것이 사실입니다。

內房漫談

음력설

인정의기미를말하는모든풍습

吳淑根

떡국

설날은 의례히 떡국을먹는까닭에

『더 떡국 맥그릇먹엇니!』

『떡국몃그릇 떠먹고오너라』

이러한말이잇는것입니다。

설떡국은 생치(生雉)고기를너서 끄려야 별미(別味)로 역이는데 만일 설날이 립춘(立春)후이 되면、시앙을 다저너서 꿩고기의반하(半夏)…俗名피를오드는를제해야한다고합니다。립춘이되면 제일먼저싹시나오는것이반하싹신데 온겨우내、풀올해치고 겨우도다나오는 연한 반하싹을 파먹는까닭에 립춘후의 생치고기는 반하독이잇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이먹는것을 한살먹는다 두살먹는다 하는것은 이 떡국먹는데서 나온말이요 또한 살 두살하는『살』은『설』이변해된 말이랍니다。

어려서부르든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설은은싸이고 설떡을먹고、설대서설이난』

역시 빈궁조선(貧窮朝鮮)의 일상、一面이아니고 무엇이겟

낫자면 빠일걸린다는 생인손 이야기

운수불길하면 팔까지 자르게돼 외과수술이 제일빠르다

요새처럼 손이틀다던지 스치어 벌거케되면 생인손이 만캐됩니다 반드시 튼다던지 스치어서만생기는것이아니라 우리눈으로 보이지안는 아주적은 상처라던 손톱을 잘못까거 살이절여진데 자리에 화롱균(化膿菌)이드러가면 생인손이되고마는데 밤낫잠을잘수업을만큼 쑤시고 알흔것이 이생인손의특징입니다。그대로내버려두어 점점 떼해지면골막(骨膜)으로부터 뼈속으로드러가면서썩는것입니다

이생인손도 정도에따라 멧종류잇습니다만은 엇쨋거나 처음하는데잇서서는 빨리 째어내어 빨리곤치를 쉬어는것이 제일이고 운수불길한놈에는 팔까지잘러버리게되는수가 잇는즉 방심할수업는 맹낭한 종기올시다。

그럼 예방을하는때는 무슨수로읍나?손에조고마한 상처、글커면자리라도 생기거든 얼른『옥도정기』를 바르고 그우에다가 붕산냅고라도 부처두면 그만입니다 만일에 곪기시작하느라고 몹시 아푸고 뜨끔거캐섯이나거든 빨리 얼음주머니로써 무처가지고 그자리를 찜질을하던지 또는이히치올을 씨을 바르던지『비ー루』씨의울혈법(鬱血法)이라고해서 고무로 맨든것으로 손고락을 가볍게매어두는법과 또는찜부를하면효습니다。그러나 이런 방법이 반드시 확효잇는것은아님니다。

그외에도『화롱균』바크친을 고약으로맨든 것이잇는데 비교적효과가 잇다합니다。

예날부터 생인손은 백일이걸려야 낫는다하지만 정말에서어물어올하시말고 빨리외과수술을 맛는것이 조슴니다。

그런데 이생인손중에 화롱균이드러가지안코 매독균이나 결핵균이 드러가서 생기는 수가잇는데 이러균이 드러가서생긴생인손은 조처럼 낫지안습니다 그럼으로 이런경우에는 특별한처치를해서 조처해야합니다

『까치설』

때때옷도업시
떡국도업시
까치는설을센다。
꿀무만한 타래보선을짓고、안옷고롬만한 빨간댕기를 접고
흰떡 한가래 조이에 싸서 저버드나무에 매다라두엇섯다
까치야 바덧느냐

(글쓴사람 유형국)

京城女子基督青年會 主催

第九回 女子懸賞歌鬪大會

時 二月十九日午後七時

場所 京城女子基督青年會館에서

申請 二月十八日午後二時까지 同會館으로 申請하시요 定員五十名에 達하면 그前에라도 마감해버립니다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會費三十錢

探偵小說

假想犯人 (1)

金來成 作 鄭玄雄 畵

探偵劇(一)

그날밤

해왕좌(海王座)제사십칠회 공연푸로그람 가운데 서울장안의 인기를 몰미듯이 끄러낸 탐정극 『가상범인』(假想犯人)의 제일막과 제이막이 끗낫슬때 관객들은 의혹에 찬 무서움과 폭풍우와 가튼 흥분을 전신에느꼇든것이다。

—만일 해왕좌의 좌장(座長)을 살해한 범인이 그의부인이 아니라고하면 대관절 누구일까 원작자가 상상하는것마가티 이 극가운데의 범인이 과연 현실사건의 진정한 범인일까。 떠구나 관객들로 하여금 현실사건과 극중의사건을 판단하기 어렵게하는것은 원작자인 탐정소설가 유불란(劉不亂)씨자신이 이 탐정극에출연하고 잇는것이요 또그외의 출연배우들도 태반이 해왕좌의 좌장 박영민(朴永敏)씨가 살해를 당한

영애

탐정소설가유불란(劉不亂)……유불란

그외 박영민의외식모…두사람

경관………서오명

탐정극『가상범인』는 저번세상을 놀라게한 본해왕좌의좌장 박영민씨 살해사건에 취재하여 좌장의 친구요 탐정소설계의 명성인 유불란씨가 친히 원작한것이다。작자는이 살인사건에 대하야 어떠한의견을 가지고잇는가?마면 경찰측이 보는바와가티 좌장의 부인인 화형배우 이몽란을 범인으로 인정하는가 안하는가。아니다! 작자 유불란씨는 이탐정극에 엇서서부인의 무죄를 주장하고잇다。그러면 범인은 대체 누구나? 작자는본해왕좌배우 가운데 범인이잇다고 단언한다。그러고—아아! 유불란씨에

그날밤 좌장대에 와잇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이『가상범인』이라는 삼막으로 되어잇는 탐정극은 단순한 극이 아니고 현실문제인 박영민살해사건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것이엇다 그리고 일반사회의 공정대한 판단을엇고저 하는것이엇다

이 연극에서 아마츄어 탐정역을 하고잇는 유불란은 벌서 제이막에서 어떠한 무서운 사실을 발견하엿다고한다 그무서운 공상을 제삼막에서 실현하여 보여주고저하는 이『가상범인』의 종막을、관객들은 두군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얼마나 기다리엇든가。

탐정극『가상범인』의 푸로그람은、다음과가튼 사실을 관중에게 가르처주고잇다。

—○—

탐정극 가상범인 (삼막)

원작자 유불란

출연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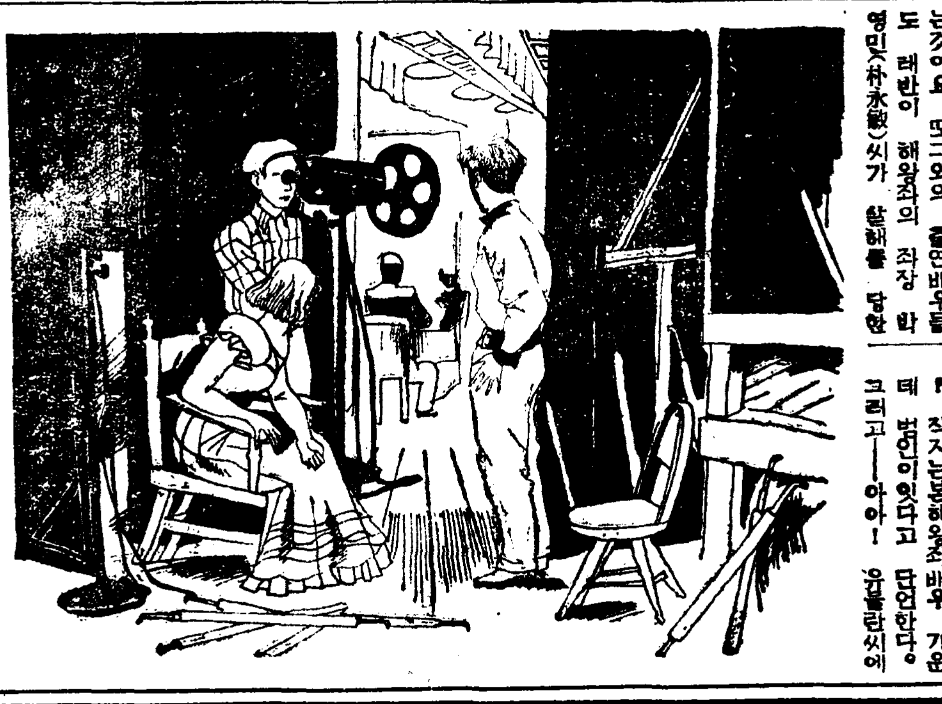
해왕좌좌장박영민(朴永敏40)

좌장부인동좌원이몽란(李夢蘭24)……양(楊)

동좌원라용귀(羅龍鬼29)……라용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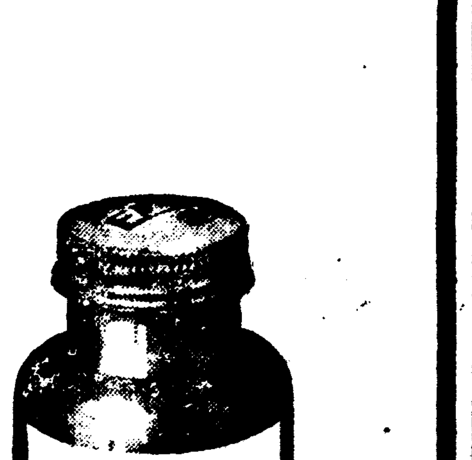
동좌원진대성(陳大成28)……천장

영애(金英愛22)……



게 살인범인이려는 무서운협의를 바터가면서 그배우는용감히도이『가상범인』이라는 연극에 출연하기를 약속하엿다

만천하의 제군이여! 제군은 이러케도 무섭고 자미잇고 치가 떨리는 연극을 본 경험이 잇는가。 작자는 지금불란는 열정을 가지고 이연극에 림하엿다。왜 그러냐하면 살인당시의 광경을 그대로 제군아페 보이기 위하야 작자자신이 무대우에 서서진정한 범인을 옥중으로 보내는 동시에 무죄한 이몽란을 철창으로부터 구해내고저 하는 때문이다。 작자는 지금지금 극중의 범인과 무대우에서 몸서리치는 알르를 시험하고저한다 그리고 좌장과이몽란및 경관과식모로 분장한는 이외의 배우제군은 전부가— 류불란씨 자신까지도—박영민씨 살해당시에 현장에 와잇든 사람들이다 이것은 단시 한개의 단순한극이 아니고 연극의 결과여하에 따라서는 경찰당국의 의견도 좌우할수잇는 한개의현실이다。 제군은 반드시 탐정소설가 류불란씨의 날카로운 두뇌에 박수할것이며 괴기극계(怪奇劇界)의 귀재(鬼才)라용귀의 이상한매력에 도취할것이다!



胃 腸

最近의榮養學上의研究에依하면비다민B가體內에不足하면胃腸의軟筋肉이弛緩되여彈力이업서지고 收縮能力이弱하야저서 잘消化되지안코 食欲이나지안으며 늘腸內에는 음식물의殘滓가停滯되야서 便秘가생기는것이 發見되엿습니다。그럼으로 消化機能의無力에對한 原因療法으로서는 먼저 비다민B를豊富히補給식혀서胃腸의收縮機能을다시금旺盛히活動식혀야되는것을알게되엿습니다。

비다민B가缺乏되면 消化液의分泌이 조치못하며 食欲이업게됩니다。이런때 비다민B를濃厚히含有한 麥酒酵母「에비오스(エビオス)錠」을 먹게되면 弛緩한胃가다시금活動을始作하며 消化液이旺盛히分泌되고 배가곱하지며 食欲이나고 滋養分도 잘吸收되게됩니다。

食欲不振에「에비오스錠」이잘듯는것은 이와갓흔藥理에맛는外닭으로 慢性의病患 特히呼吸器病患者等의食欲不振은 드되여 榮養物의吸收를阻止하꼬 衰微을더하게하야 病自體의治療機轉을 妨害하는것임니다만은 麥酒酵母를먹게되면、어려한病勢가 업서집니다。

비다민B가缺乏되면 胃의收縮機能이弱하야지는同時에 腸의蠕動運動이活潑치못하게되며 滋養物의吸收率이납버지고 飲食物殘滓가腸內에停滯되여서 便秘가생기고 異常醱酵를일으키여서 自家中毒症을일으키게만듭니다。

이런때에下劑를쓰게되면 一時間으로停滯便은나오게되나 결국 常習便秘의악습을만들어줍니다。그러나 비다민B의缺乏이 蠕動運動을不活潑케하는原因인것을아는以上 麥酒酵母에비오스錠으로 이것을補給하면 下劑를쓰지안코라도 自然的으로 排便이되게되는것임니다。

胃腸의慢性障害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原因을곳처야될것이니 반드시 每食後에 麥酒酵母에비오스錠을服用하야 消化機能의活潑을旺盛케하시는것이 가장긴요한일임니다。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田邊商店에通知하시는대로 試用藥을거저드림니다。

麥酒酵母 エビオス錠 (에비오스정)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各種紛末이잇습니다

삿보로•아사히•유니온•에비스麥酒醸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馬越[illegible]學博士創製 橋谷[illegible]學博士監製

P.K-5

◉高級紳士服 背廣折エリ上着(黑、紺厚手サージ) 四圓十錢 黑、紺セール 四圓十錢

高級紳士向 ◉縞スコッチ背廣上着 四圓五十錢

◉將校ラシヤ乘馬ズボン國防色 A品 三圓五十錢 一枚ニ付

◉將校羅紗乘馬ズボン 純毛品一枚ニ付 四圓三十錢 國防色乘馬ズボン 特價品 二圓七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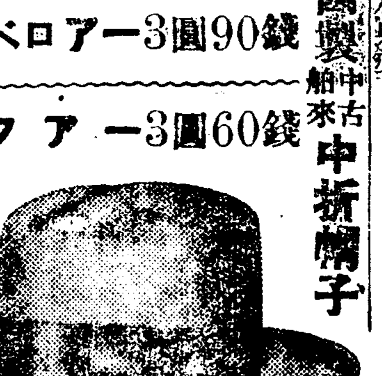
◉海軍水兵型セーラズボン (黑紺ラシャ地)一枚ニ付A品 二圓九十錢

◉紺セール水兵型 セーラズボン 二圓九十錢 B品 二圓六十錢

◉米國製中古舶來中折帽子

ベロアー3圓90錢

フアー3圓60錢



二十圓內外ノ舶來帽子ガ僅カ五分ノ一ノ値段ニテ買ヘマス

◉最新流行國防色ラシヤジヤンマー B型 二圓九十錢 首毛ゴムファスト付 三圓三十錢

黑、紺ラシャ B型 二圓九十錢 首毛ゴムファスト付 三圓三十錢

◉最新流行國防色ラシヤジヤンマー C型 三圓三十錢 ダブルエリ付 二圓九十錢

黑、紺ラシャ C型 三圓三十錢 ダブルエリ付 二圓九十錢

◉最新流行スコッチラシヤゴルフズボン 純毛 三圓六十錢 B品 二圓九十錢 C品 二圓五十錢

(ハガキニテ御註文下サレバ直チニ代金引替小包ニテ送リ升)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二一九番 振替名古屋一一五一一番

12.2.13 C.C.&E. LIBRARY

露文學의始祖 푸ー쉬킨의生涯와藝術

그의死後百年祭를當하야

咸 大 勳

오늘은 露西亞文學의 始祖라고하는 푸ー쉬킨의 死後百年祭에 當하는 二月十日이다。

그가 露西亞의言語、露西亞의文學에 남긴 偉大한功績은 여기에서 다시 賛論할 必要가업다。다만 우리가 지금에잇서서 푸ー쉬킨의 活動하든 露西亞의時代的情景을 그려본다면 오늘날 이世界的文豪를 記念하는것은 決코 單純한 追慕의 祭禮가아니고 진실로 現代의 우리와 一脈相通하는 푸ー시쉬킨을 다시 생각하자는것이다。

勿論 싸베ー트에서도 이날을 당해서 國家的인 盛大한 記念式典이잇는同時에 푸ー쉬킨의 참다운價値를 發見하려고 여러方面으로 푸ー쉬킨再探求의 소리가 노프다고하나 우리도 簡略하나마 이 푸ー쉬킨記念特輯을 내는것으로써 푸ー쉬킨을 記念하는同時에 우리네의 文學的進路와 態度를 다시 한번 도라보는것이될줄로안다。 (一 記 者)

露西亞에 잇서서 푸ー쉬킨은「바이론」이란 말을듯는다 그러나우리는 거기全的으로 首肯할수는 업다고생각한다。웨그러냐하면 그의詩에잇서서 그어떤詩는 바이론을 模倣하엿고또그가 一時바이론에 陶醉햇드니만치 그作風에 잇서서 바이론的인데가 업는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의代表作「예브게니、아네ー긴」을 읽어보면 宛然히獨創的作品으로 堂堂히로시아的인것을느낄수잇는데서 나는여기反對하는者이다

더구나 푸ー쉬킨은 不過數年間에 露西亞文學上의「말」을 創造한點으로 보더라도 그의獨創的인性質을 알수잇는것이니이리하야 푸ー쉬킨은 當時印刷物에 잇서서 必要不可缺하다고생각하든 換則的인 華麗한 文體에서 完全히 離脫한데서 또한그의獨創的境地를 차즐수잇는것이다

푸ー쉬킨은 一七九九年五月廿六日 모스크바에서 나서 一八三七年二月十日 그의 안해때문에「단테스」와 決鬪한傷與으로 그 天才的才能을 더發揮할수업시 永眠하고 말엇지만 그는 三十七歲를 一期로한 그의文學的生活에잇서서 그의功績은 露西亞文學發展上에 그母胎를 形成해노앗다고 볼수잇다

첫재 푸ー쉬킨은 華麗한演劇的인文體에서 自由로운世界를 創造하엿거니와 또 그는 驚異的인 詩的創造力을 갓고잇섯기때문에 日常生活의 가장平易한데서 또가장 平凡한人間의 가장 平凡한感情을 描寫하야 讀者로 하야금 그作中人物과 交互同感케하는 能力을 가젓섯다 그리고 또가장 貧弱한材料를 構成하야 거기生命을 담아너코도 全歷史的 時期를 描寫하는데 偉大한 才能을 發揮하엿다 이런創作的才能은 그의 根據기픈寫實主義的인데 잇다고 볼수잇스니 로시아寫實主義는 그에依하야 처음으로 輸入되여 이것이 로시아文學發展에 커ー다란 特色을 갓게햇다고 생각하게되다 그리하야 그主義는 그의傑作中에 普遍化된 人道的感情가운데 그의 明朗한生活을 사랑하는것이 歷歷히들어낫다고볼수잇게되다 그래서 그詩와形式美와의 一致는 또한 곳그詩를暗誦케 하는것이다。

푸ー쉬킨은 詩人만이아니라 劇作家로서도 堂堂히 一家를形成하엿다 그의史劇「바리ー스・고도노프」는 僭稱者 드미트리에로의 時代에서 그題材를取한것으로 여기는 그時代的인 背景이 또한精彩的인것을 描出하엿거니와 더구나 晩年作「도판」과「吝嗇한騎士」는또한 高尙한劇作으로써 前者는西班牙의浪漫的氣分가 잘되게 取扱되여 다른文學에잇서서보담도 한층더「도・판」의 人物을 表現하야 第一流劇作으로의 性質을充分히發揮하엿다고 볼수잇다 그리고 後者에잇서서는 참으로 成熟된 才能을發揮하여 쉑스피어에 比肩할수잇는 名句가 적지안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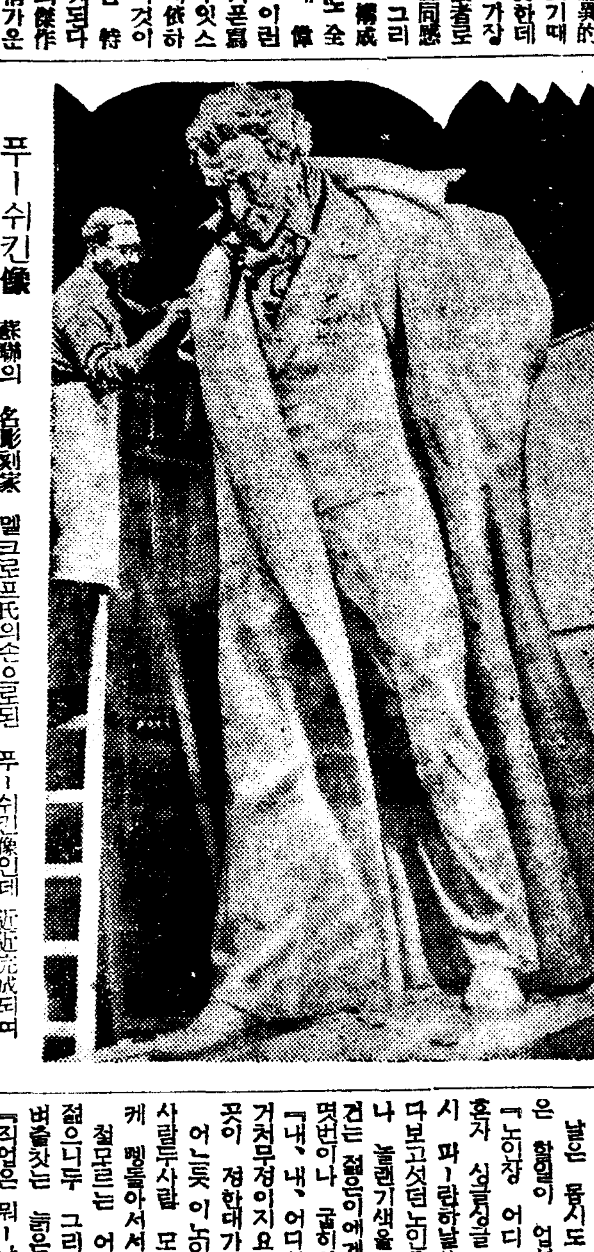
나는 이엇개안되는 劇作에서 그의 劇作家로서의 地位를 또한 놉게評價하려하거니와 그는 그의 짧은生涯에잇서서 一詩人으로 또劇作家로 또小說家로서 努力한자최는 決코 적지안흔 業績이엇다 小說「드브롭호스키ー」나「大尉의딸」은 또한 그의傑作이라할수잇거니와 前者는 最近 싸베ー트에서 映畫化까지 되엿다고 傳한다。

나는 이制限된 紙面에서 以上 그의 生涯와 藝術에 對하야 極히簡單히 論評거니와 이글을 마치려함에잇서서 그의 思想家로서의 一面을 엿보지안흘수업다。

그는 그의文學的生涯에잇서서 恒常 急進的인 自由主義的인思想이 그文學作品에 나타낫기때문에 南露에 遂放까지 當한일이 잇거니와 그는또 一時 秘密結社를組織하여 一八二四年엔 프스콥호政廳管轄의「미하일롭스코에」에서 嚴口令바든 罪囚처럼 囚人과가튼 生活속에서 思索과 讀書에 耽한때가잇섯다

그리하야 그는 카테리나二世治世中의 푸가춥亂의 歷史를쓰기도하엿다 이것은 로시아農民階級의 內部精神을 理解하고 또 國民生活이란것이 그에게잇서서 얼마나 廣濶한것을 理解시키기도 하엿다。

그러나그는 그의天分을 發展시킬 段階에잇서서 그는 不意의 決鬪로서 死하고말엇다 其實그 決鬪는 當時警視總監 벤겐돌프伯이 푸ー쉬킨을謀害하려는 奸策에서 된일이엇다 그는民衆의 支持를 밧는푸ー쉬킨에對한憎惡에서 그의안해가 단테스伯爵과 戀愛를 한다는投書를하엿다 푸ー쉬킨은 이를事實로밋고 그와 決鬪를하여 아깝게도 最後를마첫거니와 푸ー쉬킨의死는 當時 民衆에게 커ー다란 悲劇을입으키엇고 또 詩人레르몬톱흐는그의死를 吊하는詩를 쓴것이 問題가되여 캅호카ー스로 流刑까지되엿지만 어떠튼 푸ー쉬킨은 짧은生涯에 커ー다란 文學的功績을 남기고 세상을떠낫다、그리하야 그의노픈 藝術의光芒은 永遠히 人類의가슴에 뿌리기피 빗나고잇슬것이다。(이글은 露文版푸ー쉬킨全集第一卷아ー코불레의序文 룩스키의 露文學史 크로포트킨의 露文學의 理想과現實及 其他를 參考하엿슴을附記한다)



푸ー쉬킨像 蘇聯의 名彫刻家 멜크로프氏의손으로된 푸ー쉬킨像인데 近近完成되여 除幕하리라 한다

露西亞文學史上의 푸ー쉬킨의地位와業績

東京에서 韓 植

푸ー쉬킨의 文學史的 地位를 말하자면 그는 첫재 僞古典主義를 止揚하고 浪漫主義를거처正當한意味에 잇서서의 로시아레아리즘의 基礎를 確立하엿스며 十八世紀로부터 十九世紀 初頭까지 西歐羅巴文學의 模倣에지나지못하든 文學을 國民性의把握 探求를 거듭하야 로시아生活 로시아精神의 正當한 代辯者의 表現으로써 로시아文學의 獨立性을 獲得케하엿스며 비로소 世界的意義를 賦與케하엿든것이다。또 그와가튼文學의 獨立的完成은 그의 言語創造의 힘과 竝行하면서 더욱 빗낫든것이니 처음으로 文學的言語를 創造한것도 그라고하는것이다。이에對하여서는 "트루게네프"가 그讚詞가운데서 다음가티 말하엿슴으로써 明瞭하다。「그는 우리의言語를 錘鍊的으로 開發하야 그것을 지금에와서는 그의固有의美로서 힘마"로직크"와形式의美를 外國의 言語學者에게까지 認定밧게되엿스며 古代希臘語以來로는 거이 第一이라고할만리되엿다」그리하야 그는豐富하고 柔軟한言語를 驅使하면서 多種多樣한藝術的잔르를 創造하엿든것이다。이에 關하야 "테、부라고이"의 다음과가튼말을 引用할여고한다「푸ー쉬킨은 그의創作에잇서서 로시아의藝術的―詩와散文―言語의最高의 模範을기처주엇다。로시아文學史上에잇서서의푸ー쉬킨의役割은 그보담 綜括할수업는藝術的完成뿐으로만 끈치는것이아니다。푸ー쉬킨은 貴族文化의 높히에 서면서 同時에 그의身分的 閉鎖性을 克服하엿다。스스로 民主主義化한 그는 貴族文學의 모ー든 要素를 民主主義化하엿다。새로운 口語에가까운 平民的인文語를 맨드럿다。十八世紀의 모든 高級的잔르를 簡單化하엿다。그리하야 그는 現實로부터 遊離하고 抽象만하는文學時代에잇서서、푸ー쉬킨은 기픈 리아리스틱한 生活의認識으로서의文學을 創造하엿다。」그리하야 그의藝術的만한事業의하나로서、로시아語의基礎를 맨드럿다는것은、어김업시、그의最大의文化史的意義까지를 形成하는것이다。

一八三三年에完了한、그의最大한韻文小說「에후게ー니、오네깅」은、以上에말한것과가튼 그의諸特性과意義의總括的이라고 할수잇는것이다。푸ー쉬킨의現實批判의 에쓰프리온、"오네ー깅"의人物描寫에잇서서 더욱날카롭게되여갓스며 그外人物에잇서서도 現象의 本質을 透視하는 把握의方法 豐富한 言語를 使用함으로서胎生한 아름다운 音樂的餘韻을가진詩形等은 참말로 完璧에가까운 文學을創造함에잇서서 不可缺의것으로되엿든것이다。그內容에잇서서도「오네ー깅」은西歐文明의影響으로부터 生産되여온「하로르드의만토」를입은모스크바人」으로써"바이론・風"의 厭世主義者이며 意志와感動을喪失한當時의로시아의 無情熱의知識階級의代表的典型으로 훌륭하게創造하엿든것이다。이「오네ー깅」을 後日에서따른人物은 例컨대「ー진」「오부로ー몹」「라스코리니꼬」等으로從屬되는것이데 이들은 모다 典型的時代의典型的性格을形成하는 로시아文學史上에잇서永遠히업서지지안을 一聯의個性을代表하는것이다 이「오네ー깅」에對抗하야 女主人公으로서의「다차ー나」는 푸ー쉬킨이 希求하는로시아精神의 結晶이라고볼수가잇스니 그는「볼가河」가 흐르는로시아大地속으로부터 울어나온自然의딸로서 民話、民謠偉大한 로시아무지크의 信仰으로表現되는 所謂 스라브精神을 한몸에發現한單純 率直 直樸、淳朴의 女性으로서 具象化하고잇는것이다。

그는 또「트루게네프」의「루ー진」中의女主人公「나타리아」「그前夜」中의「에레ー나」等의 原型이라고볼수가잇다。그리하야 푸ー쉬킨은 無濟갓니코라이的 現實가운데서 부러서도 典型的性格의 探求로서、새로운 個性을創造하엿스며「오롱의谷中」에서로부러서도「피니크스」의 形象을 차저내엿든것이다。「도스토이엡스키ー」는 모스코바에서 擧行된 푸ー쉬킨의 銅像除幕式때에 이에關하야 다옴과가튼 演說을 한일이 잇다「푸ー쉬킨은「오네ー깅」과「다차ー나」의 두典型을 創造하엿다。그것은 로시아人의 心理의 가장 인리며ー든 秘密을 綜合한바의것이다。두개의人物을 푸ー쉬킨은 驚嘆할만한最上의 技巧을가지고 썻스니 그는 로시아의過去及 現在를 表現하는同時에 또無數한 未來를 暗示하고잇다」그러나 이와가튼「푸레아ー다」는「文學巨匠」로서의 無限한業績을기처준 그도決코 처음부터 리아리즘의大道를 堂堂히 걸어온것은아니엿다 天才的 藝術家로서의 그림푸쓰는 初期에서부터 보이기는하엿스며 또그의文學藝術의 最大의 强味이라고 할수잇는 社會現象을藝術的으로 感得할수잇는 才能을 처음부터 때때로 發露는하엿스나 全體에잇어서는「바이론」의 影響에서버서못낫스며 로만티즘의 餘韻을 놀히가추고잇섯든것이다。

그러나한때에 그가當局의 忌諱에抵觸되여 官位까지 剝奪당하엿스며 領地미하이로ー후스코에村에 閑居를宣告당한 原因을 맨든友人에게한 書簡中에서「나는지금 聖書를읽고잇으나 알만하여도精力은 나의비위에 맛지안는다 그보담도오히려「쇅ー딘」와「쇅스피어」를取한다 目下勇氣를내여 無韻詩를 工夫하고잇다」놀라고말할것은곳이와가튼때의 正直한그의心境을說明하는것이다。나아가서이와가튼精神은 畢竟一九三○年에「쇅스피어의影響을바다서쓴 史劇「보리스・고도노프」를執筆하엿을때에、友人에게 한편지中에서「쇅스피어는實은 엇더타고 말할가! 나는前今까지瞥嘆을 抑制할수가업다。그에게比較하면 悲劇作者로서의「바이론」은 어림도 업슬만큼 無價値하다。"바이론"은 재욱一個의性格만을 理解하는데서 지나지못하지안섯는가?」라고말한結果을 매젓스니 그가일즉히"바이론"의感化로부터 脫出하야 그의 眞實한 藝術的共感力을「쇅스피아」에 發見한 眞相을말함이라고 생각되다。그後로는 더욱그의藝術的天才를 레아리즘軌道에서 發揮하게되엿스니「靑銅의騎士」「大尉의딸」「스페이드女王」等、敍事詩로부터、로만風의 스토ー리로부터 더욱散文에의傾向을 取하게되엿든것이다。이대로부터 그의 리아리즘의 探求의大道는 좀으로 野에 潤溜함이업시 堂堂히發展하여나갓든것이다

그럼으로서 今日의 社會主義리아리즘에 連結하는길놈 푸ー쉬킨이 開拓하엿다고 할수가잇는것이다

新民謠의 精神과形態 (二)

乙 巴 素

新民謠의時代性

그러면 내가 실후복 말하는 時代性의 正體는 어떠한것인다?

近代都市生活의 本質인 資本主義社會生活樣式 그自體가 매우 非鄕土性的인 것이다。交通의 發達과 生活樣式의統一은 急速度로 鄕土性을 喪失시키고잇다。그러니 時代性은 점점 더濃化될것이다。

그리하야 時代性우에 切實한人間性이 나타날것이다。大體로近代人에게는 鄕土感보다는 時代感이 보담 切實한實感일것이다。

他鄕사리 멧해련가
손꼽아 헤여보니
고향떠나 十여년에
靑春만늙고。(金陵人)

現代人에게는 鄕土는업다。

그들은 永遠한「보헤미안」이다。그들의 鄕愁는 鄕土에對한 鄕愁가 아니라、時代感의 反動으로 일어나는 永遠에對한 鄕愁다。

「인테리」아닌 民衆은「不安」이니「눈쓰카(世界苦)」니 하는 術語는 몰라도 몸소 그것을 體驗하는고로、그리고 體驗치 못한그들의 體驗는 反動的으로 다만 對象업는 鄕愁에 잠길뿐이다。그들의 生活은「가도그만 와도그만 언제나他鄕일것이다。

松花江 밝은달은
有情도 하온것이
千萬里 흘러와도 날날아왓네
고향은 하도멀어
생각도 아득하오
그리운 우리님이 보내달인가

時代性에 남아잇는 民族性!

그것이지 消滅될것도 不日것을생각할때 新民謠의 前途가 興味잇게 豫測된다。

新民謠의 時代性의 一面이對照업는 鄕愁인 同時에 他面에는 生活의 不幸을 이즈려는頹廢와「데카단」이 主題가 되고잇는것을본다。

아무 前途도업시 健康한 노래의 出現을 命令하는 評家의 淺薄은 民謠의 本質을理解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錯覺이듯 십다

그러나 以上에 말한바는 最近의 이야기고 時代性은 그初期에는 新時代에對한 好奇心에 始終한것을 附記한다。「新民謠와"럽포"」에서 말한바와 가텀。

新民謠와機械藝術

新民謠는 機械藝術(라디오 레코ー드)과分離하야 생각할수는업다。傳播方法의 大部分이 되는까닭이다。

近來의 現像을보면 民謠는 詩에서 멀어저가고 音樂에接近하야가고 잇다。詩는 그다지 問題안되고 第一重要한 部分은 音樂이 차지하고잇는것이다。

樂曲의 効果를 發揮하는 藝術의 美는 文學에서 엿것스나「오ー케쓰트라」하는것이 效果的이엿것스나 作家가 完成하야、갈수록 詩에서 멀어가는 感이잇다。

그것도 또한 新民謠의 特性이라면 그만이겟지만 그것은 一方 今日의 民謠의 人工的民謠인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人工的民謠이 그다지 오래 들을수는 업슬것이다。民謠가 生命을 가진 藝術이기 때문이다。

今日의 社會는 民謠를要求하는 社會는아니다。民衆은恒常 passive(受動的)기때문에 機械藝術이 附與하는 如何한 것이나 一次 밧기는 하겟지만 必然性이업는 民謠라면 반드시 그것은 바리고말것이다 참의 時代人의生活感情을 表現한 새로운民謠、그것은 반드시 오고야 말게다。 (完)

學生作品

隨想 性格의悲劇 (上)

普專 李 應 洲

이른봄 따뜻한 해볏을 따라 어두운 방속에 가치엿든 사람들은 푸른잎이 파릇파릇 뭉겨 나오는 언덕으로 모여왓다。

날은 몹시도 따뜻하고 그들은 할일이 업섯다。

『노인장 어디 사시요?』

혼자 싱글벙글 정신업시 처다보고섯던 노인은 이말에 퍼어시 파ー라한날을 지으면서 놀란기색을 지으면서 말을 건는 젊은이에게 꾸준히 허리를 몃번이나 굽히면서、

『내、내、어디사느냐구요。게 거처무정이지요。그러지요 사는곳이 정한대가 업다는말슴이지요』

어ー느듯 이노인을가운데두고 한사람두사람 모이여들어 둥그럿케 멩돌아서서 구경을한다。

철모르는 어린애들 할일업는 젊으니두 그리고 담배대물로구 버슬잣는 늙은이두。

『직업은 뭐ー냐구 말슴이지요。머ー거지지요。』

여기까지 말한그 노인은 입모습에 우슴을지으면서『살거(居)짜。따지(地)짜。따에서 산단말입죠。』

『하하하。』

둘러서서 듯고잇던사람들입에서는 우슴이 터저나왓다。

그는 손에 소중이지니고잇던 신문지뭉텡이로 저ー 아래로내려다뵈이는 넓은 서울장안과평이채를 든채 아메서서 구경하고잇던아이들을 번가러가리키며

『요눔들두。행낭어멈만수내어먼두리꾼두。나라의정승두。막버다ー땅에서 사는거지란 말이야다ー거지야』

이노인의입에서 갈피를 잡을수업는독백(獨白)이 흘러나왓다

이른봄 춘색을 탐색하는이들은이!

나이는 오십이훨ー신넘어보이는 이노인을 발아래서부터 머리끗까지 낫낫치 훌터보앗스나 아무런 흥을 잡아내지못햇다。

구태여 잇다면 초라한그의의복이라고나할까。두루마기는 몃변을 입엇는지 검은새조차 때에 거려서 번질번질윤택이나고 그위에다 군대군대 좁이 팅겨저나와잇다。

머리에 언친모자는 먼지가케케안고 비에마진자최가 어지런이 수를노핫다。그러나 폐갑비싼신식중절모자인것만은 모자바탕을 보아 알수잇겟다。

두루마기아래로 (속여보이는회색바지

아무런 이놈은이가 이시대에 뒤떨어젓스며 역경에 헤매이고 잇다는것을 가히짐작하겟다

그러나 그의똥똥한몸집 허여멀쑥한얼굴

귀에서부터 탐스럽게도 아래터까지내려더픈 허ー연두레나루 이것들은 그의초라해보이는 차림차림을 억누르고 이러한조류의사람만이 가추고잇는 똑똑한위엄과 풍채조차 차저볼수가잇섯다。

흔히 남도(南道)산골에서 볼수잇는 양반의모습을 이놈은이도 가추고잇다。엣날에는 양반행세깨나 햇슬지도 모르는이놈은이。

그는 말을맛치고는 뒤짐을집고 뒤꿈치가 갈려저서 흰살이 내여다뵈는 누ー런고무신을끌면서 거름을 옮긴다。

새파라케 개인하늘에 떠잇는 한점의구름을 시름업시쳐다보며 무엇이 그리도조흔지 혼자싱글벙글 우스면서……。

『노인、어디가슈。이리와서 얘기나 하시요。』하며 젊은이는 양복주머니에서 마코한개를 끄내가지고 노인에게 준다。

『네 네 아무대두 안갑니다。어디양반이 갈때면 간다구 엿쭈구갑지요。네 네』

담배를 손에든노인은 한허시 허리를 구핀다。

紙上顧問

【問】小生이 게세히 알수업기로貴社에못자오니 紙上顧問欄으로下敎하십시요 一、總督府에서 施行하는 專門學校入學檢定試驗科目 受驗資格

【答】本紙에 揭載되는『今春各學校入學規定』을 보시요 (學藝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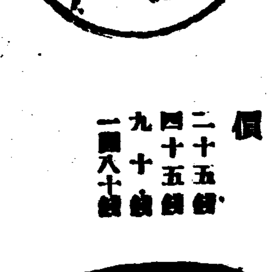
【問】小生이 市內某郵便局에 郵便貯金을하옵다가 其後새로히近住所 印鑑으로 郵便局(市內)에 同一한姓名이신데 前者의通帳을 後者에加入시켜서 하나로맨들고저 生覺하온데 如何하온지요 其方法을詳細히 下敎하십시요 (市內一讀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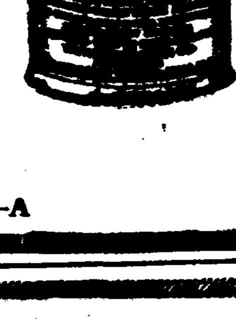
【答】처음 貯金하든郵便局에가서 貯金한것을 차저서 새로하는貯金通帳에 너흐면됩니다 다른手續은업습니다。 (學藝部)

世界의家庭藥

メンソレータム
멘소래ー

雙線의 슈푸ー루를 그리고가는 痛快味! 바람을스치는 살결의快味 멘소레탐으로 살결의防備第一





價 二十五錢 四十五錢 九十錢 一圓八十錢

000926

特効
살거칠、터진데、버진데、外傷、火傷、코맥힌데、頭痛、齒痛、神經痛、痔疾、化膿、面刀後에

2-3-A

嚴寒の脅威

感氣를輕視하면은肺炎、肋膜炎等을이르키고、遂히다시곳칠수업는 結果를만든다!

生命까지 威脅하는두려운感氣와婦人厥冷의豫防과治療에꼭守妙를準備해두시오守妙는 一時的化學藥과가튼中毒副作用의 危險이絶對로업고身體를따뜻하게하며 厥冷을除去하고感氣를治療하는 安全第一의純粹和漢藥이다

두려운感氣와 婦人厥冷의 豫防과治療에 守妙를!!

感氣熱氣婦人厥冷에
絶對中毒性이업는純粹漢方藥
守妙 수묘

이러한때는무엇보다 먼저守妙를!
足腰酌冷 四季感氣 流行感氣 寒氣發熱 血道 産前産後 頭痛眩暈 逆上 코맥힌대 感氣기운 기침날때等에조타

定價 二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全國藥店에잇슴
賣丹本舖 守田治兵衛 東京下谷區池の端 大阪南區長堀橋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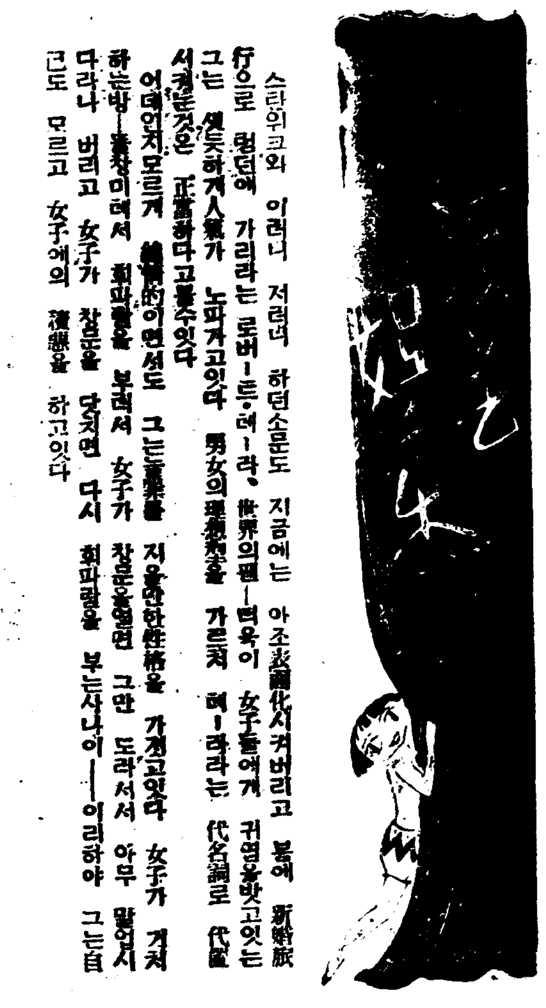
たんせき ぜんそくに
キヽメを誇るシヤブリ藥
立効丸의眞價를 試驗해보라!

▲痰咳를鎭定하고 ▲喘息숨찬데에조코 ▲老人虛弱者의기침 ▲肺病의痰咳에조코 ▲運動家는숨안차고 ▲음성을조케하고 ▲밤기침으로잘못잘때 ▲肋炎助膜炎의痰咳

藥價 二十錢 三十錢 一圓五十錢

東京・大阪 賣丹本舖 守田治兵衛

立効丸 립효환



스타위크와 이러니 저러니 하던소문도 지금에는 아조表面化시켜버리고 봄에 新婚旅行으로 런던에 가리라는 로버ー트·테ー라。世界의팬ー더욱이 女子들에게 귀염을밧고잇는 그는 센듯하게人氣가 노파가고잇다 男女의理想的美를 가르처 테ー라라는 代名詞로 代置시켜논것은 正當하다고볼수잇다

어데인지모르게 純情的이면서도 그는豪華를 지울만한性格을 가저고잇다 女子가 거처하는방ー窓창미테서 휘파람을 부러서 女子가 창문을열면 그만 도라서서 아무 말업시 다라나 버리고 女子가 창문을 닷치면 다시 휘파람을 부는사나이ー 이러하야 그는自己도 모르고 女子에의 復讐를 하고잇다

르노와ー르의監督인 꼴키ー의 "貧民窟"

◇第一回듀뤽賞授與決定

現在佛蘭西에서는 두개의映畵賞이잇다。한개는 얼마前에 紹介한 『씨네마大賞』으로서 『沈獸의印象』이入賞되엿거니와 다른한개는『듀뤽크賞』이라는것이잇다。

이『듀뤽크賞』은佛蘭西批評家들이 모힌『四十歲未滿會』가 一九三六年부터 처음으로 佛蘭西映畵藝術運動의先驅者이엿던 故루이듀뤽크氏를 紀念하기爲하야賞을設定하게된것이다。이것의第一回受賞作品은 批評家들의모임에서 오래동안 審査가進行되고잇엇더며 얼마전에야 비로소決定을보게되엿다 이賞의受賞作品은장·르노와ー르監督作品으로 有名한꼴키ー의『貧民窟』이 入賞되엿다

씨네마大賞이 佛蘭西文學의 아카데미ー賞과가튼데 比하야 듀뤽크賞은自由로운立場에서 純粹한名畵를選定하는것이다。

『貧民窟』이 入賞되기까지는三十餘作品中에서 嚴選하야 決選에新進 마르세르·카르네 監督作品『제니ー』와 짠·르노와ー르의『랑주氏의犯罪』와 『貧民窟』이남앗섯는데 드디어『貧民窟』이 入賞하게되엿다 (무비라인스 巴里通信)

라디오

十二日(金曜)

◇午後六時〇〇分 兒童과先生의時間(第二回)讀本模範朗讀 一、慾心만흔개(卷二第十一課) 二、나는스로보입니다(卷四第十二課) 京城師範附屬普通學校

◇同六時〇〇分(東) 初午日(레

(全二八頁) 木馬童話劇研究會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復習

市川 榮三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因鬼致富說話(一) 崔南善

◇同八時(東) 管絃樂 交響曲 エ프頸長調…모ー짤트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레오니ー드·크로이사

◇同八時三〇分 脚本朗讀 喜劇 假社長 全一幕ー宋影作ー 申不出

◇同九時一〇分 一、짝사랑 朴英鎬作詩 孫牧人作曲(高) 二、鹽石樓의달빛 朴英鎬詩 文湖月曲(李) 三、落日의진홍빗 朴英鎬詩 孫牧人曲(高) 四、압강물흘너흘너 金陵人詩 文湖月曲(李) 五、流浪兒의노래 朴英鎬詩 朴是春曲(高) 六、靑子되어볼 朴英鎬詩 孫牧人曲(李) 七、새날이밝어오네 金廷淙詩 文湖月曲(高、李)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라듸오소캐쥐

◇同六時二五分(城) 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話

◇同八時(東) 管絃樂

◇同八時三〇分(大) 漫才

◇同八時五〇分(東) 浪花節

十三日(土曜)

◇午後零時五分 (東)輕音樂

◇同一時十五分 婦人時間 자미잇는科學이야기 崔在緖

◇同六時 童話 새빨간꿀기꼿 延星欽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藝術復習 安興奎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因鬼致富說話(二) 崔南善

◇同八時 舞臺劇中繼ー府民館으로부ー 春香傳中第一幕 ー廣寒樓場面ー

ー配役ー 成春香……車紅女 李夢龍…… 黃澈 房子……沈影 香丹…… 池京順 後陪使令……太乙民 唱……朝鮮聲樂研究會員 靑春座

奚琴 池龍石 大笒 金一樂 細笛 李點龍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音律 一、鄕唐交奏 二、步虛子

◇同九時 南道民謠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캐지나칭칭나네 四、방아타령 五、보리打作소리 六、珍島아리랑 鄭柳色 金嬪守 吳翡翠 大笒 朴鍾基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 (東)輕音樂

◇同六時 (大)이야기

◇同六時二五分 (東)講座

◇同六時三〇分 (大)義太夫

◇同八時 (東)歌謠曲

◇同八時二〇分 (大)浪花節

◇同九時 時事解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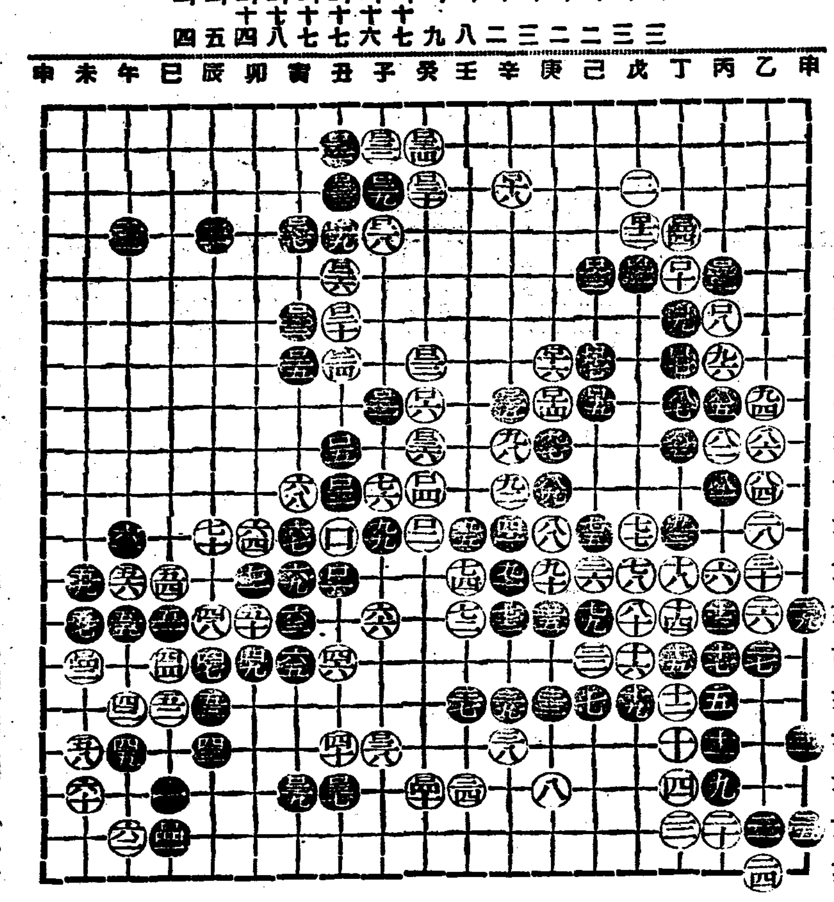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ー9ー

白 蔡極文

黑先 丁奎春

●二九 子의三 ○三〇 癸의三 ●三一 丑의二 ○三二 子의二 ●三三 丑의三 ○三四 癸의二 ●三五 辛의八 ○三六 癸의九 ●三七 丑의十七 ○三八 子의十六 ●三九 寅의十七 ○四〇 癸의十七 ●四一 巳의十八 ○四二 未의十四 ●四三 丙의五 ○四四 丁의四



觀戰者談

黑三一(丑二)로 白三四(癸二)까지는 黑이 多少讓步의 感이 有하나 黑三七(丑一七)에 先手하야 白四二(未一四)에 至한 結果는 反히 黑에少利인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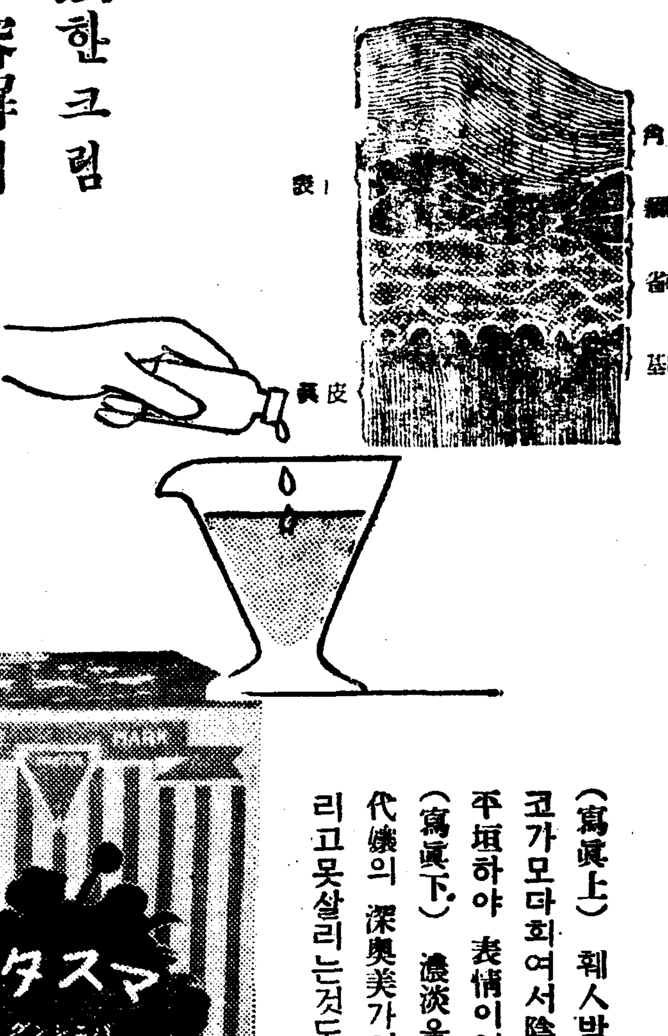
黑三五(辛八)白三六(癸九)는 高手間의 常用

マスターバニシングクリーム

마스타ー바니싱크림

아루가리度가强한크림은表皮의角質을溶解식히고살결을거칠게하고잔주름、弛緩을만드는原因이된다 마스타ー바니싱의아루가리度는皮膚科의博士도驚嘆하는完全한것이다 이것이면퍼짐도均等 淸掃力、滲透力도모다滿點이다

家族用德用大壜잇슴



お化粧下に最適

데적데적하야均等하게되지안흔것은白粉이濃淡이되어밀리기쉬운고로化粧下에는不適。마스타ー바니싱이아니면均等하고밋끈하게퍼저潤澤이나는化粧을할수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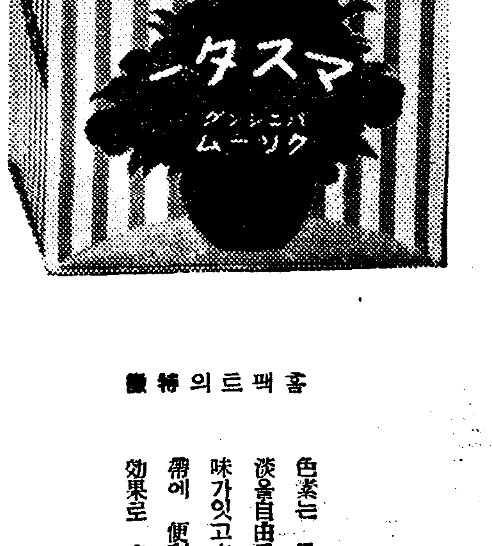
アレ止めに第一等

滲透力이强한獨逸特許스킨호루몬의效果로皮脂의缺乏을補하는榮養分이살결바탕까지滲透하야어떠한치위에라도살결거칠을막고生生하고彈力잇는살결을만들어준다

ヒゲ剃り後に爽か

面刀한後에살결을顯微鏡으로보면無數한傷한자리가보인다整肌力이强한마스타ー바니싱은面刀後에細菌의侵入을막으며爽快한그氣分은그날하로를즐겁게한다

(寫眞上) 훼人박아지를 뒤집어쓴것가튼 粉化粧으로는 얼골 빰 코가모다회여서陰影이업슴으로 田中絹代와가튼 名女優도 얼골이 平垣하야 表情이업서보인다 (寫眞下) 濃淡을 마음대로할수잇는 마스타粉白粉의 化粧이면絹代孃의 深奧美가잇는 美를 生生하게表情을 살릴수잇다 化粧을살리고못살리는것도 單只白粉하나로



홈팩트의特徵

色素는 最高級品으로色味는新鮮、濃淡을自由로 할수잇서 化粧效果는深味가잇고立體的、固型白粉임으로 携帶에 便利하고또、美肌劑ラセラン의效果로 皮膚의障害를 防止한다

天下
スター
お化粧
一

マスターパクト ホーム

마스타 홈팩트

携帶用 マスター ハンドパクト(中形) プチパクト(少形)

江原道豫算膨脹
新規事業과繼續事業擴充等
比前百五十萬圓增

【春川】 강원도의 소화십이년도예산은 공전의거액을 보게되엿는데 그내용은

中小河川改修工事 七八二、〇〇〇圓
砂防事業災害林地復舊及民營砂防工事助成 三三八、八八〇圓
道路災害復舊工事 三一三、四〇〇圓
江陵港修築工事 二〇〇、〇〇〇圓

등 신규사업을위시하야 계속사업확충등으로 예산총액은 오백팔십만원으로 전년도사백삼십칠만원에 비교하면 백사십여만원의 증가를보게되엿다

通化普校新築
補助遲延이遺憾

【通化】 통화도이주 동포들의 교육기관인 통화보통학교는 아직까지도 교사하나를 갓지못하고 지나든바 작년에 당지 민회(民會)측과 지방유지들의 연금과 조선총독부의 보조 륙천오백원을 바들 예산으로 일만이천여원을드려 신교사를 건축하는중인데 느저도 금년 신학기부터는 신교실에서 교수를 하게되리라한다 당지에서 기부로 천여원은거이 수금되엿스나 아직까지조선총독부에서 보조금 륙천오백원에대하야 정식통지가업슴으로 진교사건축에지장도 적지안커니와 당국자들도 초조히 정식통지를기다리고잇다 통화현내는 지난해의 흉작으로말미아마 주민의생활이극도로 곤난함에도불구하고 아동교육을위하여 건축비로천여원을 거출하엿슴을불구하고 총독부에서 곳 보조금을 하부치 안으면 건축도상에 잇는신교사에 큰지장이 되리라고한다

各種原料騰貴로
土木豫算에龜裂
豫算의二三割은削減同樣으로
元興橋工事도進捗難

【咸興】 군수인플레의영향으로원료인철재(鐵材)세멘트등 모든것이폭등하야 토목공사의 예산이균형을일케되야 비명을 울리고잇다는것은 루보되는바어니와 신년도 함남도예산에도 이영향이막심하야 예산안의 삭감할가량은삭감(削減)되나다름업다고 우려중이다 신년도토목사업으로 직접이영향을바들것은 홍원(洪原)군서대천(西大川)의 원흥교(元興橋)가설공사로서 십사만원나머지의예산이나 이것으로는도저히 안될것이라고하며 또한모든물가가폭등하는등에 로동자의 로임도 인상하여야 하겟슴으로 결국 공사비의 삼사할이나 삭감되는세움이므로 머리를 알코잇다한다

楊口의密酒取締
犯則者卄件發見

【楊口】 구세밑을 당하야강원도양구군에는 지난팔일 춘천세무서(春川稅務署)에서 직원팔명이 출장하야 밀주취체한 결과 의외에도 수십건의 범칙자를발견한바 당국자의처벌의향은 단호한모양이라하야 이십원가량의 벌금부과를 하리라고한다

榮州郡下強盜
十八時間後被逮

【榮州】 지난 삼일오후세시경에 영주군봉현면노좌동오주학(吳周學)(二?)은 풍기면 선내동(鮮內洞)에서 제방수축비구십원을 바다가지고 집으로도라오든중 홍원면 한천지 도로에서 두명이달려드러 끄을고 부근 술집까지다리고가서 무수한타해를가하여가면서 현금을 강탈도주하엿다 이급보를접한 영주경찰에서는 급속도로 수사에로력한 결과 그이튿날오전여덟시경인 사건발생의 열여듧시간만에 풍기면동부동에서 마부(馬夫)조복술(趙福述)(二六)외 안암례(安岩禮)(二?)등 두명의 청년을 체포하여다가 엄중히 취조하는바 그들의 자백으로 사건의 진범이 판명되엿다는데 뒤를이어 경계의 눈은 사건발생의 예방에 더욱날카라운 시선을 펴고잇스며 체포된 강도두명은 사건의 취조가 끗나는대로 곳 검사국으로 송치하리라한다

罹災窮民을爲하야
過歲錢穀을釀出
驪州郡下의人情美談

【驪州】 경기도려주지방에는 작년팔월의 대홍수로말미암아 대변피해를 당한 리재민을 내인것은 말할것도 업는사실이지만 더욱이대신면보통리(大神面甫通里)라는동리는 그정도가 혹심하엿슴으로 전호수 이백호중 반수인 약백호는 생도가막연하야 갈바를아지못하얏슴으로 동리 리윤용(李允鎔)씨가 중심이되여 원어치를 구입하야 분배하엿고 구팔월에는동리 곽한영(郭漢泳)씨가 백미오석을 희사하야 분배하엿슴으로 재민일동은 일시적이나마 기갈을면하야 칭송이 자자하엿스나 엄동을당하여 버리길도업고 더구나 울력세말을당하여도 호구지책이업슴을본 전기 곽한영씨와 동리 리재화(李載華)씨와 현대신공보교훈도 리호정(李鎬貞)씨는 각각 자기의여력을 기우려 과세할자료를 다음과가티 분급하엿슴으로 즉 혜택을바든 동리궁민들은물론 린근지방에서도 칭송이자못 놉다한다

李載華 白米四石 現金三十圓
李鎬貞 現金七十圓 郭漢泳氏
(再)麥米九十石無利分配

행자에게 표창을 하여달라하며 금오십원을 지참하엿다는데 오는이월십일에 군회의실에서 표창식을 거행하리라하며 당일표창자씨명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所陽面新橋里 李姓女(孝婦)
同面同里 金學吉(篤行)
同面同里 張判岩(篤行)
龍進面牙中里 金弼植(篤行)
雲洲面庚川里 柳英順(節婦)
上關面新里 張成洗(篤行)

崔大弘氏特志로
篤行者를表彰

【全州】 완주군 봉동면 파리리 최대홍(崔大弘)(?)씨는 금번완주군청을 방문하고 관내의 독

臨江輯安兩縣엔
千戶程度로制限
千戶同胞는北滿으로

【安東】 선만척식회사에서는 동변도의 피난동포안동(安東)랑원에 금춘에 동포이천호를 이주시키려고 예정하고 동회사기술원과 안동영사관 조선인계원이 수일전동래하여 자세히 조사한결과 전기랑원은 평야가적고 산기만흔관계로 집단부락을 설치하고 농사할곳이 적다고한다 집단부락을만들라면 농지가 이삼십리나 멀어지는까닭에 수년후에 치안이 회복된후에야 그산후여 한집단주집식 의지케될것이라한다 그러까닭으로 예정한 이천호중에서 천호만전기농지로 이주하고 천호는 다시 북만으로 이주키로 되엿다한다

家庭常備藥寄託
朝鮮商會出所서

【奉天】 만주에재류하는동포농촌

青年三名을檢擧
慶南警察部員活動
固城、統營等地에서

【釜山】 경남도경찰부고등과형사두명이 수일전에 고성(固城)통영(統營)등지에 출장하야 각방면으로 수사를 하던바 지난팔일에 고성군하에서 청년전모(全某)(二?)등 세명을 검거하야다가 부산경찰서에 류치시켜노코 극비밀리에 엄중히 취조를 계속하고잇는데 그내용은 극비밀에 부치므로 알수업스나 고성통영을 중심으로 모종 운동을 한것이 탄로된듯하다고 하는데 그취조의 결과가 주목된다고한다

賭博해돈일코
青年飮毒自殺

【榮州】 아버지의 돈이십원을 훔처다가 도박에 일허버리고 양잿물을 먹고 죽은 자식이 영주읍하망리에서 생기엿다
지난팔일에 영주읍하망리(榮州邑下望里)황영보(黃永輔)의장남 황원팔(黃元八)(二?)은 며칠전에 그의 아버지의 돈이십원을 훔처다가 도박장에서 모조리 일허버린후 밤가되여 그의아버지에게 꾸중을 듯고 나간후 다시 들어와서 무어이지 마시고 고민하므로 그제야 가족들이 김공의(金公醫)의 왕진을 바다

新婦를恐喝미끼로
間婚노랏다고人妾에게脅迫한후
六名이千圓奪取

【鎭南浦】 약혼하여둔딸을 병신이라고 신랑편에 퇴구하여 약혼이 깨여젓다고해서 오륙명이 작당하여 돈일이라고 신랑편에 협박하여 돈입당하여가저지고 협박하여 돈입을 빼서 다먹고 동리에서 내여정원을떼어먹고 동리에서 내여쫏기기까지한 패역무도한무리가잇다 룡강군대대면당사리(大代面柳沙里)리복녀(李福女)(二?)가 명ㅡ는작년사월에 룡강군양곡면(陽谷面)배모(裵某)의아들과약혼한후길일을 택하여 결혼식을거행하려하든때에 이웃집에사는 리겸의(李謙義)의첩 정락호(鄭洛浩)가신부되는 리복녀가간질병자라고하자 이말을드른 신랑의량 가정에서는 즉시파혼을선언하엿다 한편리처녀의 가정에서는뜻박게일이니까 정락호란녀자의거즛말로 파혼케되엿다는것으로말성이 생기여 얼마전 리처녀의아버지 리겸모(李謙模)의부처와 그외 아우리겸룡(李謙龍)의부처를 비롯하여 동리사람여섯명이 공모하여 가지고 리겸의와 그의첩정락호를 차저가무수란한후 위자료일천원을 바더먹고도 부족하여그동리에서내여쫏차 방금진남포지산리(芝山里)에와서 살고잇스면서 너무도 억울하여진남포경찰서에 공갈협박죄로 소를 제기하엿든바 가해자들은 다시와서 고소하엿다고 구타하며 면서 당장고소를 취하하라고강박함으로 또 할수업시 고소를 취하하엿다한다 이소문이 진남포경찰서에 탐지되바되여 포겸사국에 구인장을 발하여 구일오후세시경 구인장을 발하여 공범자 여섯명을 입시에구인한후 엄중취조중이라한다

하엿스나 벌서시간이오래이므로모든 응급책도 수포로 도라가버리고 지난십일오전일시에드되어 절명되엿다한다

노름해돈일코
「강도마젓소」고밥

【新義州】 노름하다가 돈빼앗기고 허위강도고발하야 룩치장신세까지 지게된 어리석은자나어——의주군광성면민포동(光城面民浦洞)일매륙장?리명용

妓生의特志
病든隣人을同情

【大田】 대전부 중앙정이정목오십사번지에사는 대전권번 기생리외구 뭇치 (?)

農地令嚴存不關코
作料五分을引上
作人들蹶起해全北道農務課調停
井邑熊本農場處事

【井邑】 농촌은 농지령실시후에 제일회소작계약개정기에 해당하므로 리해가 서로 반목하는지주대소작인간에는 계약기를 압두고 벌서부터 쌍의거 분쟁분이 니라 판개당국도 소작문제의 시끄러울것을 념려하야 대책을 강구하는등 공기는 점점 긴장하야 오는중 최근에 남선의 대지주웅본농장(熊本農場)에서 변오부의 소작료인상을 선언하야 큰 중동을 일으키고 잇다는데 소작료인상의 리유로서는 농장측의 표방하는바에 의하면 농사개량에 의하야 아프로 삼변간에 상당한 증산할예정임으로 그것을 지주와소작인이 절반식논는다는것이라 하며 결국삼년에 일할오부요 일년에 오부의 징수라고한다 도농무과에서는 전기사실을득마하기에는 너무나중대한것임으로 응본농장시전지배인(染田安)을 초청하여 지난팔일에도 청에서 장전농무과장(田長田農務課長)외기타관계자들이 장시간당국측의견에대하야 협의한결과 농지령을 기본삼아 소작료는과거삼년간 실적에 빗추어정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나렷다 그러나 아직도 도농무과농장측간에 구체적결정은 업는모양이나 소작개정계약기가 절박한오다 다 소작인의문제는 웅본농장에잇서 전기의문제는 웅본농장소작인의 사활을 결정할중대문제일뿐아니라 일반소작인에게도 영향이클문제인만큼 작인들의 물론은 분분하다고한다

펄펄끌는두부가마에
어린에가빠저데죽어
움려섯이나혼꿈찌한입

【淸里】 돗기에도 무시 무지한어린에가 끌고잇는 두부(豆腐)가마(釜)에 빠저데여죽은 참사가잇다——지난사일오후다섯시 중계남영정리(?)홍여종(洪某)의 장손 청(?)(?)은 빠저서 그것을 업거니보고 잇든 집안사람이 울려섯 움려주는 집안사람의 손을흐섯는 비로 봉어에서 큰가마에 두부

(重王龍)(?)은 지난팔월오후에 新甫(?)가 든곳에사는 김태현(金泰鉉)과 도박을하야 돈빼앗긴것을 원통하게생각하고 김태현에게 싸흠을겁어 돈비 여기에도 힘이약하야 때를맛고는 분함을 이기지못하야 신의주경찰서에 재수를당하야 강도로 신의주서에는 고와신고를 하얏승으로 신의주서에서는 때가구 시겨 현장에급행하얏는비 전기 외가를 사실이드러나서 신일간 외구 뭇치를할하얏다한다

미망ㅅ홍창훈(?)은 동리오십이 번지에살며 매일가다 그날그날 생활을 계속하여가는 강제영(康在榮)이라는 사나이가 구변 말놀랑하야 신병이나서 살어일 간 벼선에누어약한절도 못쓰고 조석까지 끄리지못하고 신음한다는것을듯보고 백미인파 소나무바리외에 약철이라도 사서쓰라고 현금이원을 주엇스므로 리사실알안 동리사람들은 칭송하여 마지안는다고한다

病땜에나무못하고
樵夫悲觀自殺
上奉下奉코生途업서

【竹川】 춘궁기의생활난과 신병을극도로 비관한남어지 구렁정초의가절농압두고 삼십일세를일기로 목매죽고만 눈물겨운이야기——그는 황해도해주군운산면유정리(海州郡雲山面柳亭里)이백이십일번지 안윤형(安允亨)씨의장남 정호(鼎鎬)로서 지난삼일에 우연히 집을나가 날이새도록 도라오지안흐므로 고대하든중 그이튼날 동리아해들이 부근산으로 놀려갓다가 소나무에 목매달린 시체를 발견하엿는데 그는평소에 신병으로 신음하면서도 그날그날 땔나무를 해다가 근근생활해가든바 우에는 륙십로친을 모신데다가 다소라인의 부채도잇는것을 극도로비관한남어지 그와가티 자살한것이라고한다

(慶北安東郡豊川面元川里)에원적을든 리유추(李裕秋)(三?)는지금부터 삼년전에 생활난으로 가족을 데리고 봉화군춘양면우구리리금정광산 (春陽面牛口峙里 金井鑛山)에와서 그동안 매일과가리 지하(地下)에 드러가 일을하야 그날그날을 지내가든중지난오일에도 지하삼백척이나기픈곳에서 일을하고 망석시려올리는 승강기를타고올라오다가 기계에 갈리여무참히도 이세상을 떠나버렸다는대 살길업는 유족들의곳 부르지짐은 참아볼수업다한다

機械에갈리여
鑛夫一名慘死

【奉化】 경북안동군풍천면원천리

地方人事

▲南相爀氏(平壤稅務署長)江原道金化稅務署長轉任人事次本報安城支局來訪
▲金英權氏(前南陽警察所長)平澤檢査所로轉任人事次本報南陽分局來訪
▲柳哲圭氏(南陽穀物檢査所長)新任人事次本報南陽分局來訪

鮮山昭和勞働創立【鮮山】 오래전부터 주식회사로 조직을변경하라고 준비중이든 군산소화권번(昭和勞番)은 지난 칠일 오후네시부터 군산명월관에서 권태형(權泰亨)씨사회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얏는바 중요역원은 다음과갓다 한다
取締役社長 朴在秀◇取締役會長 全義錄

의 물론은 분분하다고한다

新春野談大會

▲日時 二月十五日午後七時
▲場所 高麗青年會講堂
▲演士 申鼎言、庾秋岡
◇主催 高麗青年會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長篇小說 그의自叙傳【53】
長白山人作
熊超畫

방랑의 길 (十)

T의 하는일은 항룡중임 끌장을 끼고 책사를 떠돌어 다니는것이엇다. 그래서 조선에관한 말이 잇으면, 책을 살 돈은 업으니까 그 자리에 서 보앗다 오늘에 다 못보면 이튿날 또 가서 보앗다. 그리고는 책사주인에게 퇴잔을 맛으면서 요긴한 구절을 베겻다. 이렇게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시장해지면 집으로 돌아왓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은 또 책사들이를 떠낫다.
T는 김부식(金富軾)을 원수같이 미워하엿다. 그는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쓸때에 사실을 굽혀서 한족을 주로하고 제나라를 종으로하여서 민족에게 노예근성을 붓는것을 본개하엿다. 그리고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전착한 무리들도 죽일놈들이라고 날을 뿜니고 분개하엿다. 그는 조선역사를 바로잡는것을

에서는 별로 책도 읽지아니하는 모양이엇다 설경과 고관은 놀고 돌고앉어이엇다. 그가 치레우에 눈을 밟듯 나려깔고 앉어서 물끄러미 세계 강종교를 하고 잇는것은 밤낮 이는것이엇다. 그 것들이 녹아서 마치 조편갈은 술에 봇고 묘리는 모양이엇다. 그러나 아직도 덜 끓 은 모양이지 오늘에 이르러도 아무 소식이 업다.
그때에 상해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잊히지아니하는 두 사람을 가진 이는 역사가 T다. 그는 책사와 도서관을두 저서 얻어내인 새 재료로 조선 고대사에대한 여러가지 논문을 썻다. 첫째로 그가 세상을 놀라게한것은 기자조선의 부인 이엇다. 지금 와서는 그것은 한 상식이 되엇지마는 그때에 잇 어서는 기자조선의 부인은 퇴 로 폭탄선언이엇다.
그러나 T는 궁하게 궁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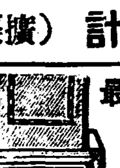
일생의 목표로 삼는동시에 역사상에 불후불의한 무리들을 필주하는것으로 사명을 삼앗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는 함께 살앗다.
날마다 한 두 차레씩은 대개 이야기판이 버러졋는데 그때에 어떤 이야기들은 햇는지는 너무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지금도 머리에 남아잇는것은 K의 관조론(觀照論)이다. 그는 인생을 관조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는것인데 아마 자기는 인생 갈등의 와중에 들어가지아니하고 한 칭 높은 자리에 머물러서 인생을 내려다보고 살자는 뜻이 아닌가 한다. 그후에 K는 안남으로 인도로 남양으로 돌아다녓으니 여행기 하나 쓴 일 없엇다. 그것은 써서 무엇해? 하는 태도엿다. 두어번 그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소설도 끝없이 긴 이야기를 하나 써보앗으나 끝을 맺지아니하고 말앗다. 그는 평생에 그 『관조의 태도』라는 것을 떠나지아니하는 모양이엇다. 무엇이나 다 알아두지마는 내가 몸소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해서 무엇해? 하는 모양이다. 아마 은사라는가 처사의 심경일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생활에 또 한가지 잊히지아니하는것은 S의 종교론이엇다. 그는 불교와 예수교와 회회교와를 한데 뭉쳐서 세 종교를 만든다고 자칭하고 잇엇다 기실 불교에 편

봉경으로 상 해로유리하다가 마친내 번번치도 못한 일로 무정부주의자 일파와 함께 감옥에서 분사하고 말앗다.
또 하나 상해에서 만난 사람이 잇엇다. 그이는 다만 상해에 모인 사람들중에서만 장로일뿐더러 조선 안에서도 장로로 존경을 받는 이엇다. 그는 P라고 호하고 또 미친놈이란 뜻을가진 호도가지고 잇엇다. 벌서 이도 빠지고 머리도 세인 파파노인으로, 역시 합병전에는 서울서 P라는 신문에 주필로잇던이다. 그는 밥을 주면 먹고 옷을 주면입고 또 술이생기면먹고 없으면 굶고 다만조선의 역사를 쓰고 불충의한 자를 공격하는것으로 생활을삼고 잇엇다. 누구에게나 아첨하거나 비위마춤을도 모르고 저 생각하는대로 말하고 행하는 늙은이엇다. 그 절개에잇어서 T와 다름이 없으나 성품에 잇어서는 T보다 훨신 시언치이오 또 섯자적이엇다. T가 늙으면 P와 같이 되엇을는지 모르거니와 T는 언제나 칼날같은 아지와 절개로 뭉치진 사람으로서 시인적 여유조차 아니 가진 사람이엇다.
아모려나 P나 T는 다 술어지는 조선의 그림자엿다. 다시 놓기 어려운 표본들이엇다. 그들은 벌서 죽어 없고 그들의 이름조차도 젊은 사람의귀에는 들릴 기회가 없어지고말엇다.

藥種商講義錄
(除免金學入) 來出本合特二三一
呈進代無本見容內
朝鮮藥業研究社
京城府鐘路四丁目五九番地
振替京城二一一八九番
電話光化門二二四三番

短期의學習으로生活安定의自由業
時計修理法敎授
內容進呈要二錢切手 京城府南町二〇四京城時計修理院

養毛 美髮의 第一이다
美孃香油
美孃ポマード



形整 顏•眼•鼻
구마사•깨•은죽•름드여
科病淋 設特
照會要郵料
相談無料
院 醫 華 淸
(隣會商林鷄) 鍾路二ノ七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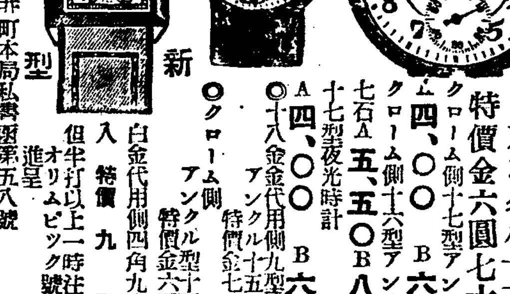
金剛키네마第十週年紀念豪華版!!
主演 李源鎔 車相根 朴濟行 金(?)
監督 (?)
撮影 (?)
詩 (?)
人生航路 春芳曹
全十二卷
二月十四日 超特別大封切
同時封切 창굴의女王
파社超特作全發聲級日本版
優美館

本業과副業에
生活少資本으로收入確實한職業 ... 千代田商店 大阪市西區本田通一 電話西七三九八番

中毒治療 無苦痛完治、通院自由 天安本町 仁濟醫院

今や雷論の時代に雄辯家
◆演說の事なら何んでもわかる!
雄辯の秘訣を公開す!!
式辭と演說挨拶の仕方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 現代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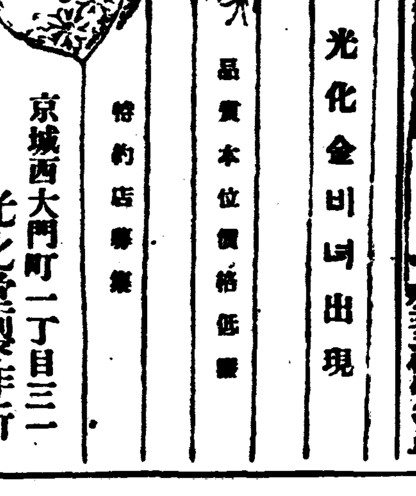
十八金代用高級時計(擴張紀念)
驚異的大好評! 斷然人氣集中!!

◎十八金代用側16型 アンクル十五石入 特價金六圓七十錢也
クローム側十七型アンクル 四、〇〇 B六、〇〇
クローム側十六型アンクル七石A五、五〇B八、〇〇
十七型夜光時計
◎十八金金代用側九型アンクル十五石入 特價金七圓也
◎クローム側 アンクル型十石入 特價金六圓也
白金代用側四角九型十五石入 特價九圓也
最新變型
新義州府常盤町本局私書函第五八號 ユーピー合名會社時計部 振替京城一九八八六番

產婦人科 婦人科 院長醫學博士松本泰治(月水金) 顧問 工藤武城(火木土)
京城婦人病院
京城本町九四 電話本局二·三六九三

高級アイスケーキ 機械
돈버리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其他各種冷凍機特價販賣。豫約開始
代理店。特約店 外交員募集。
型錄進呈 製造營業秘法傳授
朝鮮冷凍工業所 釜山府大廳町 電話五六一番

京城府市計劃地圖 定價2.00
京城公平町六二(鍾路和信橫) 振替京城一五三九八番·電光三六〇番
東亞商會 主 金敎昌

各種信託 迅速有利 低利貸出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天野式
矢野テント商會
光化金비녀出現

品質本位 價格低廉
特約店募集
型錄進呈
京城西大門町一丁目三一 光化堂製作所

凍傷にアスター

鮮內唯一

分院長資格特別講習
最新最效 物療電醫責任養成
本院創立은東京醫學校創始學長
◎物理最效醫學全科를短期卒業
全國本院卒業自由開院安心
內務省가近間發令으로前途洋洋有望
◎今回는卒業後分院長이되는特典이잇슴
迷惑치말고배워서生涯成功의길을速하라
內容見本은書留로本號早速申込하라
朝鮮高等電醫總本院
京城齋洞金町三九三

東洋劇場
舊新年特別公演
劇團豪華版公演
十二月末日早러(晝夜二回)
人情劇 黃金狂時代 二幕
遂萊山人作
歌劇長恨夢
南宮 春 編 九景
劇團豪華船이아니면歡劇長恨夢의眞價를알수업고豪華船의用演이아니면絕對로할수업는歌劇長恨夢입니다豪華船에完璧者를明朗한우슴으로舊新年을마지하야주시기바랍니다

謹賀舊新年 原州
原州邑 和信商會 百貨 金寶秀
原州邑 張汝舟
原州邑 張汝霖
原州邑 三山醫院 電話三一番
江原道原州邑 朝鮮料理 永興館 主 金錫鎬 電話二四番
原州邑上洞里 朝鮮料理 花月館 電話 番
原州邑 寫眞會員 陰鍾埴
原州邑 ハルヤ寫眞館
原州邑 中華料理 聚英樓 電話三八番
原州邑 中華料理 春芳園 電話六一番
原州邑 自轉車專門 長谷商店原州支店

經濟時評
林內閣産業政策
國民生活安定보다도 準戰時體制로 邁進?

林內閣은 八日議會에 臨하야 그 施政의 方向을 示하는 政綱政策에 關한 聲明을 發表하야 玆에 國民에 公約을 하게되엇다 그러나 그聲明은 抽象的에 傾하야 政府의 眞意가 果然 那邊에 잇는가에 對하야서는 政府今後의 態度를 보는수밧게 업다 따라 國民多大의 關心도 自然 이點에 傾注된다고 생각된다 特히 財政經濟政策에 對하야서는 單只

一、帝國을 安泰히하고 其興隆을 擁護하며 國民의 要望에 必要한 國防軍備를 充實히하는 同時에 生産力의 增進을 圖하는等 國力의 基礎를 뭇도록 期함

一、內外의 經濟情勢에 適應하야 産業의 綜合的發達을 企圖하고 保護의 施政과 同時에 適切한 統制를 實施하며 또 國民創造力의 發揚、企業心의 勃興을 助長하기를 期함

이라고 하얏슬뿐으로 具體的으로는 何等의 表現도 볼수업는 形便이다 그만치 國民의 期待도 크다면 크다할수 잇스나 一面 또 그만치 不安도 作하게되지 안홀가 勿論 最近의 物價騰貴問題에 對하야서는 根本的對策을 講究할必要가 잇슴을 結城藏相은 말하고잇스나 財界에서 極히 評判이 조치못하든 馬場財政의 如何한點이 如何한程度로 修正될른지는 分明치안타.

그러나 最近의 國際情勢의 險惡化에 應하야 準戰時經濟體制로 改編을 急히하고잇는 日本經濟는 그進路나 그態度도 이미 決定되어잇서 누가 그任에 當하더라도 이제새삼스러히 變更할수는 업는것이다 財界에서 多大한 期待를 갓고잇는 結城藏相의 手腕으로도 아마 그렇도록 容易히 緩和할수는 업는것이라 하겟다. 그러나 現內閣에잇서서 結城藏相의 地位를 생각하면 財政政策은 勿論이러니와 産業政策의 方向決定에 當하야서도 藏相의 意見이 크게 反映될것은 當然하다 藏相의 本部라할 商工大臣에 昭和製鋼社長 伍堂中將을 내엇슴은 鐵과燃料의 兩問題에 遺憾이 업도록 期하기 때문이나 一般産業政策에 對하야서는 結城藏相의 意見이 重要할것이다.

그는 物價騰貴의 問題에 對하야서는 藏相就任後 記者團에게 말한바가티 이를 解決하기에는 根本的對策을 講究할 必要가 잇다 하야 ... 한다 그가 去一月二十六日 日本商工會議所總會에 臨하야 述한바는 今後의 財政經濟政策의 動向을 示唆하는바 甚히 만타.

[illegible] 內閣의 三十億四千萬圓의 豫算 ... 必要가 잇다고 ... 「政府는 現在産業 及 貿易의 ... 物價騰貴에 對하야 ... 根本的으로 ... 配給部門에 ... 生産部門 ... 準戰時體制의 强化 ... 林內閣成立前後의 客觀的情勢에 비추어 보아도 明白할것이다

前內閣은 二·二六事件直後의 非常時에 際하야 ... 國民生活의 安定을 ... 國防의 充實과 ... 生産力擴充 ... 輸入의 增大를 ... 平和産業에도 ... 統制의 ... 될것이다 (完)

豫算案修正은 土木費에 大斧鉞
一般補助獎勵費에도 觸手?
關係當局者渡東協議

結城藏相은 前內閣이 編成한 豫算案에 修正을 加하기로되여 一部豫算의 節減을 하게되엇다 朝鮮豫算에도 一部節減이 잇슬것은 避치못할것으로 되여잇다 그리하야 渡東中의 大野總監 林財務局長은 中央의 方針에 依하야 朝鮮豫算修正에 着手하고 目前에는 土木課長을 비롯하야 鐵道局等 關係者가 뒤를이어 渡東하엿다 그리고 一部豫算의 節減은 豫算四億一千餘萬圓이 昨年에 比하야 八千餘萬圓이 增加된 重要한 部分은 鐵道事業의 膨脹 災害復舊等을 加味한 土木事業의 增大等으로 節減을 한다면 그中重要한것도 鐵道와 土木이 中心이 될터이다 그러나 鐵道는 中央線 其他 新設線이나 改良의 目標가 一般産業經濟를 爲하는것보다 國策上重關係가 만흔 關係로 容易히 節減 또는 延期를 許할수업는 緊急한事情을 가지고잇서 結局은 一般土木費에 손을 대이게 될터인데 그中에서도 港灣關係는 亦鐵道와 가튼性質도 업지안허 其他의 河川事業等이 危殆할모양이다 또一般補助獎勵費等에도 一部修正이 업지안흐리라고 보는데 大體에 잇서서는 그리큰 程度의 修正은 업슬것으로 보고잇다

殖銀의 總貸出 五億圓突破
事業殷盛과 物價高等으로 各種의 資金需要旺盛

殖産銀行의 昭和十一年末現在의 貸出高는 長期貸의 三億三千萬圓을 筆頭로 商業金融의 一億五千萬圓等 約五億一千萬圓에 達하는데 産業貸는 前年末(十一年六月)보다 約三千百九萬圓의 增加를 示하고 商業金融에 잇서서도 四百二十六萬圓을 激增하얏다 그 原因은 産業貸에 잇서서는 一般의 新設擴張과 그原料購入資金 等의 需要가 增加한것이오 商業金融에 잇서서는 貿易의 殷賑 物價의 昂騰等 一般의 資金需要가 자못 旺盛한것이다 諸貸出內譯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年賦及定期貸	三三三、一七四	
引受債券	二四、四一八	
證券及手形貸	一〇八、六二六	
當座貸越	一三、二七四	
商業手形	二一、七七二	
荷物爲替手形	一三、一六九	
特別貸付	二〇四	
其他	七五〇	
他店에貸付	一二、一七九	

現在殖産債券 三億二千萬圓

殖産銀行殖産債券發行의 今年二月現在額은 總計三億二千六百二十三萬八百圓으로 發行總額 八億七千三百七十七萬一千五百圓 償還總額 五億四千七百五十四萬七百圓

이에 債券發行回數는 百七十八回(十一年十一月十五日)로 利率最高는 五分五厘의것이 八百五十萬圓이며 最低는 昨年十月의 三分六厘 一千五百十萬圓이다

既設金融機關의 所有株肩替難色
企業金融會社難産

企業金融會社의 設立에 關하야서는 目下 渡東中의 大野政務總監、林財務局長이 協議를 進行하고잇는데 其內容으로서는 殖銀、朝銀、東拓等의 所有株를 企業金融會社가 肩替함에 對하야 此所有株의 肩替에 關하야서는 意見을 交換하고잇는바 相當한 難色이 잇는 것 같이 是等金融機關方面에서 相當히 反對가 잇스므로 同社의 創立은 아직 相當한 迂餘曲折이 잇스리라고 보인다

一方 企業金融會社로서는 此事業株의 肩替를 하지안코서는 社의 基礎가 成立되지안는 事情이 잇다고 보인다

粟輸入減少 米移出增加
上旬米穀輸移出入狀況

總督府調査=一月上旬 粟輸入은 三萬一千百二十四石으로 前年同期二萬八千五百六十五石에 比하야 二千五百五十九石의 增加

[illegible] 比하야 七萬九百十四石의 增加이나 昨年十一月以來累計에 잇서서는 三百一萬九千百五十一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實로 六十九萬九千四百六十六石의 激減인바 그原因은 朝鮮內凶作과 價格의 割高及 所持側의 賣惜等이라 한다

▲米輸移出高(玄米換算單位石)

	今年	前年
上旬	一一四、九〇〇	四四、〇八二
十一月以降累計	三、〇一九、一五一	三、七一八、六一七

▲米輸移入高(單位石)

	今年	前年
上旬	二五	二〇二、二六七
十一月以降累計	六、五八二	三六、〇〇〇

▲粟輸移入高(單位石)

	今年	前年
上旬	三一、一二四	二八、五六五
十一月以降累計	二〇〇、〇〇〇	一二六、九五二

朝鮮內洋灰의 限産率等이 問題
産統法實施의 難關

重要産業統制法의 施行과 同時에 朝鮮內洋灰統制는 强化될 터인바 此際問題가되는것은 工場認可와 減産率의 査定이다

一、工場認可=朝鮮內에 無統制로 示野田은 古茂山에 뒤니어 三陟과 開慶에 計劃中이고 宇部系의 朝鮮세멘트는 旣定計畫에 加하야 키룬一基의 增設計畫이 잇는데 此中 小野田開慶과 朝鮮洋灰의 增設의 兩者를 果然認定할는지가 問題이다

一、減産率의 査定=朝鮮안에 適用하는 減産比率을 如何히할가는 困難한問題로 日本內地、朝鮮、滿洲間의 輸移出入狀況과 朝鮮內의 需給에 立脚할必要가 잇다 現計畫을 合計하면 朝鮮內能力은 二百萬噸을 超過하야 五割以上의 減産은 不可避이다

右兩者의 決定이 當하야 民間에서는 小野田系로서는 工場認可의 擴大、限産率의 緩和、朝鮮本位의 主張을 갓고잇고 淺野와 如한 朝鮮은 犧牲工場으로하야도 日本內地의 協調를 達한 統制를 希望하야 業界의 安定을 期하는 意向으로 極히 微妙한 狀況에 잇다

産統法實施의 難關
目下 總督府에서는 此等의 諸點을 愼重調査하고 잇다

長津江水電 五千萬圓增資
日窒이 一手引受

長津江水電株式會社에서는 來二十七日午前十時부터 咸南下岐川本社에서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一、商法二百十四條에 件한 監査役調査報告

一、增資에 關한 定款變更의 件

一、增資新株의 引受方法에 關한 件

의 三項을 附議할터인데 이는 同社의 第二次計畫遂行을 爲하야 資本金을 一億五千萬圓으로 增資하야 七千萬圓으로 함에 件하는 臨時總會로 增資新株百萬株는 日本窒素가 一手引受하기로되어잇다

平南鐵道四月着工

平南鐵道會社에서는 目下用地를 買收中인바 三月中에는 거이 終了하게되므로 四月初에는 着手할豫定이다

財界人의 結城財政觀
投機輸入이 商品界에 不安
◇水間殖銀理事 談

新內閣의 結城財政은 豫算의 修正 稅制의 改正에 나타나고 잇다 이것이 財界에 及하는 影響은 아직 混沌하다 그러나 問題는 地方配付稅의 廢止 即 地方財政交付金으로 二億五千萬圓을 支出한다는 言質을 政府가 議會에서 이를 어주엇슴으로 稅制案의 結末지을런지 所謂 結城財政도 여기에 不安이 잇다 또 財界도 關稅의 引上으로 巨額의 輸入을 보지못하얏는바 關稅引上이 締結되는데 이것이 米國西海岸의 罷業으로 實際의 輸入을 보지못하얏는바 罷業도 解決하야 一時에 이輸入이 締結되면 그것이 巨額이 나만큼 諸商品의 大暴落이 이러나지 안흘가 이러한 潛在的不安이 樂觀을 不許한다

三月頃에開始
起債市場은
◇辛子殖銀理事 談

結城財政의 馬場財政修正에 依하야 가장 起債市場과 關係잇는 綜合課稅問題가 源泉課稅로 復歸하야 起債市場은 이에 好感을가지고 大體의 豫測이서게되어 社債類는 一齊히 昂騰步調에잇서 京成電車社債等은 벌서 成立한다한데 아직 細目의 發表가 업는것과 이제곳逆轉的條件으로 社債를 내면 大藏省도 조화하지안흘것임으로 아직은 形勢觀望이라는 姿勢를取하고잇스나 三月頃에는 起債談도 開始되게될것이다 殖銀으로서도 그때즘 考慮하려한다

人氣를 蒐集케하고잇다 起債는 源泉課稅의 復活은 明朗性을 回復하고잇는데 金融界는 압서 源泉課稅를 要望決議하고 잇슴으로 그때문에 起債談이 解放되어 이로부터 活況을呈할것이다

殖銀의 增資
總會에서要望

十二日 殖銀의 定時總會에서 株主로부터 增資擴込徵收의 要望이 잇섯는데 이에對하야 株主의 渡邊副頭取는 「至極適當한 要望이오 事項이 重大하므로 愼重研究하겟다고 言明을 避하얏는데 同行의 貸出五億突破는 增資機運을 마츰내 濃厚하게하고잇다

經濟界消息 (cut)

○共生藥業株式會社創立=閔興鎭、李鍾九、方義錫、李容鎭氏等外 諸氏는 今般資本金參拾萬圓으로 共生藥業株式會社를 創設하야 去五日부터 營業을 開始하엿다는바 營業所는 京城鍾路一丁目七一番地에두엇다고。

○ 殖銀의 貸出總額五億一千萬圓을突破! 여기저기에 大工場이 簇出하고 物價조차뛰여올라 大資本家의 活躍時代는왓것만 그反面에 窮乏한 大衆이 잇슴을 看過치못할일

○ 쌀을 못먹어 보리를 사먹고 지어노흔 쌀은 잘팔리지조차안흐니 딱할일

日立製作暴騰

纖維株는 部分軟調裡에 不變이오 電力株의 再弛、金鑛株의 反動低等으로 雜株商勢는 風風하나 材料잇는것에는 買氣集中하야 物色買氣는 依然熾烈할것이 推測할수잇다. 日立製作은 增資를 決定햇고 또 國産工業과의 合併이 決定되엇슴에도 買氣가 적어지는데서 割低視되어 今朝에는 俄然暴騰하야 五圓五十錢高로 一、二二、〇、同新이 三圓暴騰인 二五、〇을 보엿스며 國産工業도 同調로 三圓三十錢高인 八七、一 同新三圓七十錢高로 四〇、二를보엿다。日滿아루미는 一圓三十錢低로 一息이나 同新은 三四、七로不變이엇스며 과사工業은 一圓五十錢高로 三一、五、同新은不變인九十圓七이엇스며 新興鋼山은 三十錢高로 三九、四인데이兩者는아니라 株高가 影響되고잇는것으로보이는點이 不無하다。金鑛株는反動低로三、八 도로지二十錢低로 三一、〇 全羅鑛新이 八十錢低인 二〇、〇이엇는데 石油株는堅强하다

株式 保合圈內나 堅調
今日의市勢【十二日】
前場底堅 休日後의 今朝

國債 暴騰
米貨債는

▲東京【東京電話同盟】財界에서는 藏相의 稅制修正에 相當한 好感를 보내고잇스므로 人氣는 意外로 堅强하야 閑散하나 第三五分利는 四分半은 五錢高 佛貨十錢高를 告하고 米貨債는 特別課稅率이 顯著히 低減되엇스므로 利廻修正이 急減히 行하야저서 六分半十一圓七十錢 五分半二十二圓七十錢으로 大暴騰을 告하엿다

▲甲五分利一〇〇、五〇 ▲二回四分一〇一、〇〇 ▲佛貨一九七、四五

▲大阪 ▲甲五分利一〇〇、四〇 ▲二回四分利一〇一、〇〇 ▲第三五分利一〇一、四五 ▲一回四分利一〇二、〇〇 ▲米貨六分半四〇〇、〇〇 ▲佛貨一九七、四五 ▲滿洲公債一〇〇、一五

期米 押目買로 反撥
前場少高 再昨後場版址卅一圓九十九錢止와共히 卅圓十錢

市場雜感

㊑……豫算修正을 有力材料視하려는 傾向이만흔모양이나 ▲材料는알고난後면 그만이란것을勿忘 ▲賣偏된人氣는機會만잇스면 賣叩하려고 드는모양이나 賣叩해도내리지안는 市勢는 아모래도 殊常하질 ▲인제한번 大暴를깨고 내리느처하야 살곳속이고는 上放하긴이아니런가몰라! ▲目前整理나지아니한 市勢를 盲目買할수도못된다하나 追擊賣는그以上으로 警戒되는일

㊊……言心稱大勢는 올는다 ▲三十億四千萬圓에達하는 大豫算이 通過될터이라하야 市勢는미리부터 行動을一巡하엿슨즉豫算이 通過되다할지라도 更新할餘力이업슬것이 可期 ▲더구나 期米는一圓二十七錢 高 千赤十常八九가 强氣이다마는 高萬口一番으로主唱한다 六感은 이것이 안할까 ▲米穀이 안스되 어나 警戒가 ...

이바로 부득!

實物前場取引

▲朝鮮殖産銀行三〇、〇〇 ▲日本石油三〇、一〇 ▲全羅鑛業新三九、三〇 第二回郵便新一九、二〇 ▲同興紡新三九、五〇 ▲人造肥料新三九、五〇 ▲東洋紡新 ▲滿洲興業新三九、〇 ▲朝鮮工業三九、〇 ▲大同電力新三九、〇 ▲日本鑛業新三九、五〇 ▲朝鮮土地三〇、〇〇 (取引高五百枚)

當分은强保勢
産地賣惜으로

去八日 六十一萬四千餘石의 賣買로 決定發表한後 各地市勢는 依然下游하야 約四十千의 反撥을 示하야 ... 成績이 良好하엿스므로 勿論買上의 一掃되고 此秀한 農家의 態度는 又一層强해하야 次回의 買上을 또한 强材料하는 光景으로 더욱 賣惜하는 모양인데 大體 今後의 大勢는 又復一段의 高價를 示하고말것은 東實이나 그러나 産地의 出廻가 稀薄한 方으로는 朝鮮米의 割高로 日本內地의 移出이 不振하므로 또한 高價를 許할餘力도업다 要하면 當分間은 强保勢를 免할바 업다 그러나 月初의 三十圓九十八錢은 春間의 天井이 아닐가한 高價를 가지고 잇다고 誤이 多하며 그以上의 高價는 期待키難하고 此에서 어느程度까지의 高價를 示한後에는 買方도 春暖期의 到來로 警戒하지안흘수업슬것이므로 畢竟은三十圓臺를 中心으로 一張一弛하다가 春間에 入하지안흘가하는 商談도 업지아니하다 未知何

後場反撥
後場은 三十一錢이 七十錢고로 始하며 三十二圓三十九錢으로 高價를 示한後 三十二錢에 反撥하엿스나 嗚咽하며 ...

高價買도疑問
當分保合가?

反間 [illegible] 反撥 ... 的 步調를 示하고잇스나 이러한 反撥은 材料로 高價買도 疑問이라 할 지안흘수업다 高價를 許할 ... 米價의 大勢는 아직도 高價를 남겨노핫다 하여도 過言이아니나 그러나 朝鮮의 凶作又는 이上추려豫想된 景氣의 ... 는 今月新甫發會初의 三十圓九十八錢의 高價로서 旣히 一巡하엿 다고도할수잇스며 市勢의 一面 은 反高後에는 必反落을 示함 을보면 騰勢도일서 老境에 入한

今日財界【十二日】

◆米(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〇、九〇	一〇高
大阪期米 先限	三三、二五	一五高
京城◎三等玄米 一石	三〇、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百키로	一〇、一〇	一〇高
一斤 三等		
고공		

◆株(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東新		
鐘新		
日産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朝取期米取組內容
(單位百石)

◇當限 ◇賣方 ◇買方
◇中限
◇先限
[illegible]

前述한것이 아니나하다 ... 賣買는 約定된것이 아니라 朝鮮米의 市勢를 좌우할 材料 ...

正米 少堅裡에 閑散

京城少堅 正租의 高價持續과 定期高을 움겨 十錢高氣配가 되엇스나 取引은 全然업다 ◎三等三〇、一〇 四等二九、八〇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强含 舊正關係로 市中取引은 不賣不買의 閑散場面으로 定期小高를 움겨 氣配十錢高唱이엇다 ◎三等三〇、一〇 四等二九、八〇 一等白米◎三二、四五 ◎三三、三五

釜山不變 市場賣物은 二千叺이잇섯스나 移出採算이 맛지안코 舊正月로 市場은 全혀 休業狀態로 겨우 少量의賣買가 五百五十四叺成立되엇다 ◎三等三〇、五〇 四等三〇、二〇 一等白米三三、九〇

大邱少高 舊正月로 市中取引은 休業狀態이나 定期高로 氣配는 十錢高이엇다 ◎三等三〇、一〇 四等二九、八〇 一等白米三三、二〇

群山少堅 正租의 高價持續과 定期少高로 氣配는 十錢高唱이엇스나 舊正關係로 市況은 閑散하나 此邊의 價位에는 産地는 幾分 賣氣가 潛在한모양이다 ◎三等三〇、二〇 四等三〇、〇〇 一等白米三三、八〇

木浦不變 舊正으로 一般業者가 休業하야 氣配는 判然치안흐나 定期少高로 下游人氣이다 暗氣配는 不變이엇다

海外經濟【十日】

[illegible]

銀行券【十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單位千圓)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外國爲替
[illegible]

鰮油粕·麥粉
◆阪神鰮粕 ◆阪神鰮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金買入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仁川 期米 福 吉村取引店

期米
◆朝取期米 (前場 一～十節 / 後場 一～七節,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限 九·〇〇〇 中 三〇·一〇〇 先 九九·五〇〇 [illegible]

◆群山期米 ◆木浦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出來高 當 七·九〇〇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合計 本期總計 八·二三二·三〇〇石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株式
◆朝取短期 ◆短期主要株取組 ◆東京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現株 [illegible]

仁川 米 盃 株 京城 金益證券商會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現物(S·T) 賣買中 二二·六〇錢 [illegible]